

차례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3주년 기념 행사

(1) 추모 및 기념식	02
· 추모사 (우원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2) 국민 추모 부스	05
(3) 학술회의	06
· 참관기 (정우기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청강문화산업대 교수)	07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백지화 투쟁 현황 보고

·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백지화 투쟁 경과 (편집위원회)	08
·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백지화 투쟁 성명서/기자회견문 모음	14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홍범도장군기념공원 준공식

· 카자흐스탄 홍범도장군기념공원 조성 경과 (편집위원회)	24
· 홍범도 장군 묘역 역사	26
· 홍범도장군기념공원 준공식 참석 후기 (박석봉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	27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국립대학교 지능정보대학 신설 사업

· 크즐오르다국립대학교 지능정보대학 신설 사업 소개	29
------------------------------	----

2023 특별기획

· 민족 영웅 홍범도 장군의 삶과 투쟁(4) (반병률 홍범도아카데미 원장/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	30
---	----

고려극장 설립 90주년 및 고려일보 창간 100주년 기념전시회

· 자원봉사 후기 - 기억한다는 것은 의지를 갖는 것 (조하연 광운대학교 학생)	38
--	----

시민 기고

· 홍범도 장군과 장(壯)한 군사(軍士)들 (이민호)	40
-------------------------------	----

국내 고려인 학생 자녀 역사 교육·탐사

· 한국 여행의 아름다움: 역사 속 영웅들과 새로운 인연, 그리고 즐거운 추억 (김콘스탄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	43
· 이희영 선생님과 홍범도 장군님에 대해 배우며... (설유환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학생)	45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46
--	----

회원 동정

	48
--	----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3주년 기념 행사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를 맞이하여, 홍범도장군 기념 사업회는 홍범도 장군이 유해 봉환 후 안장되어있는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추모식을 함과 동시에, 전국 6개 도시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추모 부스를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장군님 영정 앞에 헌화하고 그 독립정신과 희생 정신을 기릴 수 있었다.

(1) 추모 및 기념식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추모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3주년 기념식

일본놈들이 우렁잡죽거도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이종만공은
내어줄수 없다
홍범도어록에서 가져옴.

**홍범도장군 순국 80주기 추모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3주년 기념식**
2023년 10월 25일 | 국립 대전현충원

현충탑 참배	현충탑 10:30
기념식	홍범도장군 묘역(독립유공자 제3묘역) 11:00
식전공연	'이름꽃시' 드로잉콘서트
개회	사회 오광영 이사(대전모임 대표)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축문낭독	홍범도 장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약력보고	홍성종 이사(남양홍씨 남양군파 중앙총회 회장)
추모사	황원섭 부이사장
	우원식 이사장 방현석 소설 <범도> 작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종찬 광복회장
	정용래 유성구 원장 광복회장(양준영 대전지부장 대독)
	노송달 대한고려인협회 회장
헌화 및 분향	대한고려인협회 회장(채예진 부회장 대독)
기념촬영	
기념공연	목원대학교 중창단 '시네테노레'
폐회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순국 80주기 추모식은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원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함께 참석하여 언론사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기념사업회 회원 및 시민, 그리고 기념사업회의 홍보대사 조진웅 배우 등 100여명이 홍범도장군 묘역 앞에서 나라를 위해 오로지 희생만 한 홍범도장군의 삶을 되돌아 보고,

뜻하지 않은 역사전쟁 속에서 역사 왜곡 시도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다짐 하면서 장군님이 평안 하시기를 기원했다.



추모사

우원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일본놈들이 위협해도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이 총만
큰 내어줄 수 없다.

- 홍범도 장군님을 이곳 현충원에 모셔 온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홍범도 장군님이 돌아가신 지 8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항일 독립전쟁의 가장 큰 대첩인 청산리전투 103주년이기도 합니다. 태극기를 두르고 고국으로 귀환한 그 모습을 떠올리면 아직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공군 전투기 여섯 대의 엄호를 받으며 대한민국영공을 진입하는 모습은, 우리 스스로 조국과 민족을 지켜낼 수 있는 강한 군대를 가졌음을 홍 장군께 보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 장군님은 고아, 머슴, 군대 나팔수, 제지공장 노동자, 신계사 식객승, 백두산 포수로 살면서 나라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입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일본과 싸우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인과 두 자녀 모두를 독립전쟁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으로 지옥의 길 강제이주 당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인생의 말년을 극장의 수위로, 방앗간의

노동자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런 장군이 돌아가신 지 78년 만에 국가 최고의 예우로, 장군의 피어린 투쟁에 힘입어 선진국이 된 조국의 품에 안기는 장면은 “그래 이게 나라다!”라는 큰 울림으로 모든 국민의 가슴속에 뚜렷하게 각인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 인생에도 최고의 장면이었습니다.

봉오동, 청산리전투는 우리 독립군과 일제의 정규군이 맞붙어 싸워 이긴 자랑스러운 독립전쟁 승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독립운동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 일제 식민지배로 고통받던 삼천만 민족에게 나라 잃은 굴종과 설움을 씻게 하고 자존심과 자주독립의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유해봉환과 현충원 안장, 육군사관 학교 내에 독립영웅홍상과 독립전쟁영웅실 설치, 대한민국 장서훈 수여는 독립전쟁에 대한 계승 작업으로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확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책임지고 계신 박민식 장관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기념행사에 큰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지만 장관님, 홍범도 장군님께서 78년 만에 돌아온 고국 땅에서 여전히 편히 잠들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바로 홍상 철거 논란 때문입니다. 그 논란에 보훈부의 수장인 장관님께서 마치 동조하시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 이번 국립감사에서 홍범도 장군 홍상을 육사에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의에 “안중근 의사 동상을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하면 맞는 거냐” 라고 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럼 우리 육사가 일본 육사라는 말인가?”
- 우리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1호 군인 홍범도 장군의 홍상이 바로 있어야 할 곳은 우리 국군의 간성을 키워내는 육군사관학교입니다.

또 홍범도 장군이 귀환 때 받으신 서훈을 이중 서훈이라고 문제 제기 하셨습니다.

- 이런 인식에도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상훈법은 동일한 인물이 같은 업적으로 훈장을 중복 수여하는 것을 막는 것이지 다른 업적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같은 경우인데 홍 장군님의 이중 서훈 논란이 이념적 접근이 아니길 바랍니다.
- 어제 국회에서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21대 국회 결의안 중 가장 많은 국회의원 181명이 함께 독립 영웅 홍상 철거와 독립전쟁영웅실 철거 백지화를 내용으로 담은 결의안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도 육군사관학교는 독립전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홍상 철거를 계속 해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 이것은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이고, 독립군,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고 하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막아야 합니다.
-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보훈부에서 육사 현충관 앞의 독립영웅들의 홍상과 독립영웅실 철거 백지화에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군님께서 일제와 싸우시느라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신 지 113년 만에 그리고 그토록 바라시던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시고 눈을 감으신 지 78년 만에 이곳 현충원에 묻히셨습니다. 장군님이 계시는 이곳에서 새롭게 다짐을 합니다.

- 우선은 절대로 1937년 스탈린 정권에서 당하셨던 지옥의 길, 강제이주의 아픔을 이 대한민국 땅에서 다시는 겪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둘째, 추진하다가 다 못 이룬 독립전쟁 기념공원을 반드시 이루어 냅시다. 헌법정신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통은 임시정부이고, 의병과 독립군, 광복군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국군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장군님의 동지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스러져간 무명용사들의 훈령이 깃든 독립전쟁 기념공원을 반드시 함께 완성합시다.
- 셋째는 홍 장군님이 돌아가신 이번 주간에 기념사업회가 주관이 되어 전국 7개 도시에 분향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장군님의 나라 사랑 정신을 바로 국민들에게 알려 대한민국이 외세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운동의 최종목표인 이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을 이루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군님! 느닷없는 역사 전쟁으로 몹시 불편한 시기입니다. 민족 영웅으로, 기둥으로 생각하며 떠나보내기 아쉬워하던 카자흐스탄 고려인들께 저희가 잘 모시겠다고 굳은 약속을 하고 모시고 왔는데, 그 고려인들께 불 면목이 없습니다. 오직 몸 둘 바 모르게 죄송하고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런 불편함이 오히려 오랜 기간 묻히고 지워졌던 장군님의 정신, 독립전쟁의 역사를 전 국민이 새로 깨닫고 마음에 다시 새기는 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희 기념사업회 후배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음 놓으시고 평안히 영면하십시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2) 국민 추모 부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국민 추모 부스 안내			
서울	대 2023년 10월 23일(월)~28일(토) 곳 노원구민회전당 앞	주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후원 국가보훈부	
대전	대 2023년 10월 25일(수)~28일(토) 곳 서대전행무소역사관 대표소 앞	주관 민족문제연구소 후원 국가보훈부	
대전	대 2023년 10월 23일(월)~28일(토) 곳 유성온천공원 입구	주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대전모임 후원 국가보훈부	
안산	대 2023년 10월 29일(일) 곳 안산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	주관 대한고려인협회 후원 국가보훈부	
광주	대 2023년 10월 25일(수)~28일(토) 곳 광주YMCA 2층 무진관	주관 광주YMCA 후원 국가보훈부	
대구	대 2023년 10월 26일(목)~28일(토) 곳 교남YMCA 회관 앞	주관 한국YMCA전국연맹, 대구YMCA 후원 국가보훈부	
춘천	대 2023년 10월 29일(일)~29일(일) 곳 공작관교 조각공원	주관 강원민주재단, 춘천기독교청년회 후원 국가보훈부	
카자흐스탄 일리마디	대 2023년 10월 23일(월)~28일(토) 곳 일리마디 고려극장	주관 카자흐스탄 고려인연합회 후원 국가보훈부	
주최 단체 및 문의 :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02-786-8747			

순국 80주기 맞이하여 일부 역사 왜곡 시도를 보며 가슴 한켠이 답답했던 국민들이 홍범도 장군을 직접 뵙고 추모할 수 있도록, 10월 23일~29일 주간에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는 서울, 대전, 안산, 광주, 대구, 춘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장군님의 영정사진이 있는 추모 부스를 설치·운영하였다. 추모 부스 설치·운영에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대전

모임, 민족문제연구소, 대한고려인협회, 광주YMCA, 한국YMCA전국연맹, 대구YMCA, 강원민주재단, 춘천기독교청년회, 카자흐스탄 고려인연합회와 고려극장이 적극 함께 하였고, 1주일 동안 서울 1,800명, 대전 600명, 안산 200명, 광주 300명, 대구 150명, 춘천 200명 등 약 3,250명의 시민들이 장군님 영정 앞에서 묵념하였다.

(3) 학술회의

11월 15일, '홍범도와 그의 동지들(3)'을 주제로 이정희 전 고려극장 문예부장과 반병률 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의 논문 발표가 있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특별히 임성욱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특임강의교수가 홍범도 장군의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일부 시도에 대해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잘못된 역사 인식 오류를 바로 잡는 발표를 하였고, 학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여 홍상 철거 논란에 임했던 본인의 생각과 경험담을 발표하였다.



학술회의

홍범도장군 학술회의 참관기



정 우 기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청강문화산업대 교수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의 홍범도 아카데미에서 매년 주관하여 개최하는 학술회의가 2023년 12월 15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는데,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로 참여한지 3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참관하게 되었다. 행사 제목이 “왜? 학술세미나가 아니고 학술회의이지?”하고 참석하였는데 회의장소에 들어서자 이해할 수 있었다. 많은 청중들을 대상으로 학술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이 아니라 소수의 관련자 분들이 여러 주제를 함께 회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일방적인 전달보다는 참여자들이 집중적으로 토의하는 형식이었다. 오후 2시부터 당초 4시간으로 예정되어 있던 회의는 사회자가 오후 7시 어렵게 마무리하여야 끝날 정도로 열기가 넘쳤다.

학술회의는 제1부 “홍범도와 그의 동지들(3)”에서 홍범도 장군을 가까이 접한 분들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다루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정희 전)카자흐스탄 고려극장 문예부장은 카자흐스탄에서 여러 어른으로부터 전해들은 평범하지만 인간적인 홍범도 장군의 카자흐스탄 삶을 이야기하였다. 홍범도 장군이 카자흐스탄에서 자신의 삶을 연극으로 만든 “의병들”의 공연을 보고 자신을 너무 영웅화하였다고 겸손하고 평범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반병률 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항일혁명가 이인섭과 홍범도라는 주제에서 비슷한 시기에 항일혁명 활동을 하였지만 활동공간에서 다소 거리가 있었던 이인섭 항일혁명가가 항일역사에서 홍범도 장군의 진정한 가치를 복원하게 되는 과정을 자세히 다루었다. 즉, 홍범도 장군이 함께하는 조선 백성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미래를 위해 주저 없이 행동에 옮기는 진정한 혁명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제2부는 홍범도 장군을 둘러싼 역사전쟁과 홍상 철거

논란에 대해 다루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임성욱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특임강의교수는 최근 벌어지는 “육사의 홍범도 장군 홍상 철거 주장인 1) 공산주의자 홍범도, 2) 자유시 참변의 책임, 3) 육군사관학교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왜곡된 논리와 오류에 대해 “사실 확인과 홍범도 장군의 정신이 육군사관학교의 정체성에 맞다”는 설명을 분명하고 쉽게 보여주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성원용 인천대학교 동북아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홍범도 장군 홍상 철거 주장이 미국 중심의 단일 패권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앞서가는 이념 과잉과 시대에 뒤쳐진 상황 인지에서 나오고 있음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일반적인 학술회의가 전문가들만의 주제와 논의로 이루어진 반면에 홍범도 장군 학술회의는 제2부 홍범도 장군 홍상 철거 논란과 연계하여 일반인들의 경험담을 함께 나눔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첫 번째 경험담은 이지현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원이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홍범도 장군의 홍상 철거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였고, 두 번째 경험담은 황경선 시민이 일반적인 시민의 관점에서 직접 철거 반대 운동에 참여한 경험을 이야기하였고, 세 번째 경험담은 김경준 한양대 사학과 박사과정인 젊은 사학도들과 홍범도 장군 홍상 철거 반대를 위한 여러 활동들을 소개하였다.

2023년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3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홍범도 장군 학술회의는 홍범도 장군의 평전이나 소설로 알게 되는 위인의 모습보다 자신이 몸담은 공동체에 가까이 헌신하는 평범하고 인간적인 홍범도 장군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고 이를 따르려는 미래세대의 모습과 의지를 느낄 수 있는 회의였다.

홍범도 장군 홍상 철거 백지화 투쟁 현황 보고

※ 본 내용은 2023년 8월 24일 육사 내 독립 영웅 5인 홍상 철거 논란이 시작된 이후로 전개된 사항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나무위키의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홍상 철거 논란/전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홍범도 장군 홍상 철거 백지화 투쟁 경과

편집위원회

2023년 8월 24일 (목)

- 오후 3시: 육사 내 홍범도 장군, 지청천 장군, 이회영 선생, 김좌진 장군, 이범석 장군홍상 독립기념관으로 철거/이전을 내일(8월 25일) 한다는 정보 입수.
- 오후 4시: 사실 확인 및 홍상 철거 시도 규탄 기자회견 결정
- 오후 8시: 8월 25일 오전 9시 국회 기자회견 재확인(홍상 철거를 한다는 소식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문의가 빗발침)

2023년 8월 25일 (금)

- 오전 9시: 홍상 철거 시도 규탄 국회 기자회견
<주요 참석인사>
우원식(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국회의원)
이종걸(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이회영 선생 손자)
김을동(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좌진 장군 손녀)
이준식(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지청천 장군 외손자)
박덕진(시민 모임 “독립” 대표)

육사 내 독립전쟁 영웅 홍상 철거 시도는 역사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반(反) 헌법적 처사라며 규탄하면서 육사 교정에 세워진 독립전쟁 영웅 홍상을 철거해 독립기념관에 보관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었음을

독립기념관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 국군의 기원인 독립전쟁의 역사를 뒤집으려는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문제라고 밝힘. 또한, 문재인 정부 지우기를 하려다가 우리 국군의 정통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함. “보훈부 승격 이후 행보가 우려스럽다. 본연의 역할보다 가짜 유공자 서훈 박탈 논란,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 삭제, 홍범도 장군의 서훈을 문제 삼더니 이제는 독립전쟁의 역사까지 부정한다는 의심이 든다”며 윤석열 정부와 보훈부를 비판.

- 육사: 교내에 있는 김좌진, 홍범도, 이회영, 이범석, 지청천 5명의 독립군 장군과 독립운동가의 홍상을 이전하기로 했다고 말하며, “교내에는 학교 정체성과 설립 취지를 구현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한·미 동맹의 가치와 의의를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념물 재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다만 홍상 이전은 보훈부의 지시가 아닌 자체적인 계획이며, 안중근 장군 동상, 심일소령과 강재구 소령 동상, 화랑상, 문무상, 국민교육헌장탑 등 다른 기념시설과 기념물은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국회 국방위
·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분들 중 소련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도 있다. 공산 세력과 맞서 싸울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발언.

- 김병주 의원: “홍범도 장군은 공산당에 가입했지만 1943년에 서거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 당시 건국훈장을 줬다. 해군의 홍범도함은 박근혜 정부인 2016년도에 만들어졌다”고 반박하면서 다른 네 사람은 공산당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지적.
- 우원식 의원: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참변과 무관함’에 대해 기자회견
- 광복회 성명: ‘독립운동 역사 지우기’로 인식
- 독립기념관: 육사의 요청을 받고 홍상 전시는 어렵지만 수장고에 보관하는 조건으로 이전을 허락했다고 밝힘. 즉, 철거가 이뤄져 기념관 측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상설 전시도 하지 않고 기념관 창고에 보관된다는 뜻임.

2023년 8월 26일 (토)

- 국방부/육군사관학교: 독립운동가 홍상 철거 의지 재확인. 국방부는 이러한 행태가 ‘독립군과 광복군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련 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이력 논란이 있는 인물을 육사에서 기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입당 전력이 홍상 철거의 이유 중 하나임을 재확인.

2023년 8월 27일 (일)

- 한겨레신문: 군 내 소식통을 통해 홍상이 철거된 뒤 해당 자리에 백선엽과 맥아더, 밴플리트 장군의 홍상을 설치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공개.

2023년 8월 28일 (월)

- 정부 고위 관계자: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공동청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홍상도 철거를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소련 공산주의 세력과 손을 잡았던 전력을 고려할 때 그 홍상을 국방부 등에 설치해온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음을 내포. 이는 최근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나 북·중·러 밀착을 경계하는 한미일 3국의 공조 강화 등의 흐름과도 맞물린 것으로 보임.
- 국방부 대변인: 홍범도함 함명 변경도 검토해야 할 사안

으로 필요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국방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홍 장군보다 남로당 조직책 출신인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기념물이 더 많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자 “(박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으로서 “홍범도 장군의 역사적인 가치는 다른 차원이어서 바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힘.
- 국방부: 독립영웅 5인 중 홍범도 장군 홍상만 육사 교외로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
- 국방부: 기자회견에 ‘육사의 홍범도 장군 홍상 관련 국방부 입장문’ 배포
- 국가보훈부: 홍범도 장군과 몽양 여운형 선생의 건국훈장 수훈과 관해 서훈 박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이종찬 광복회장: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공개 서한 송부
- 신원식 의원: 이종찬 광복회장 사퇴 주장
- 시인 서해성: 시 “동삼암살” 발표

2023년 8월 29일 (화)

- 국방부: 군 내부에도 역사와 전사를 연구하는 인력들이 있기에 홍범도 장군 홍상 이전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학계 등 외부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힘.
- 국방부 정례 브리핑
· 전날 국방부가 발표한 ‘입장문’에 대한 기자들의 ‘홍범도 장군과 김일성이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 공세와 질타 쏟아짐.
- 서울시 노원구: 육사가 소재한 노원구는 육사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행사 취소.
- 신원식 의원: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육사 공산주의자 홍상 존치 규탄대회’ 기자회견.
· 김영교 제대군인자유노동조합 공동대표: 신원식 의원 기자회견 백브리핑에서 홍범도 장군 홍상에 대해 “독립기념관 이전도 절대 안 된다. 홍범도는 파묘해서 북한으로 보내야 돼”라고 막말을 쏟아냄.
- 신원식 의원: “육사는 1946년 조선경비대사관학교로 만들어지고 국방법 만들어져서 국군이 정부수립과 국가건국 된 후에 거기 해당되는 사람만 선양했다”며 그 정체성은 공산주의의 침략을 지켜낸 것이 그 정체성이라고 함.

이 발언은 대한민국 국군 및 사관학교들의 전신을 독립군 및 광복군과 더 나아가 군대해산에 항거한 대한제국군과 이어보려 한 그간의 노력을 뒤집는 발언이라 할 수 있음.

2023년 8월 30일 (수)

- 국가보훈부: 홍범도 장군에게 추서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함.
- 국방부: 육사의 홍범도 홍상만 옮기고, 국방부 청사 앞 홍상은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 또한 육사가 홍범도 장군 홍상만 독립기념관에 이전하고 그 자리에 더글러스 맥아더의 홍상을 배치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함.
- 대통령실: 남로당 경력이 있는 박정희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의 경우와 다르다고 주장.
 - 야당: 잣대가 이상하다며 대통령실을 질타.
- 한덕수 국무총리: 육사 내 홍범도 장군의 홍상을 교외로 옮기는 계획이 타당하다고 발언.

2023년 8월 31일 (목)

- 한덕수 국무총리: 앞선 8월 27일 국방부 대변인의 홍범도함 함명 변경 검토와 관련하여, 한덕수 국무총리도 홍범도함 함명 변경 검토 발언. 이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홍범도함이 ‘주적과 싸워야 하는 군함’이라고 하여, 홍범도가 국군의 주적과 연루되었다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암시.
- 언론 보도: 육사가 이전을 고려하는 독립유공자 동상이 기존에 알려진 5기 외에 박승환 참령의 동상도 포함되어 총 6기였다는 사실이 보도됨.
 - 육사: 갇은 논란에도 홍범도 장군 홍상은 육사 밖으로 이전하고, 이회영 선생, 김좌진·이범석·지청천 장군 홍상은 교내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여기에 더해 충무관 안에 있는 박승환 참령의 홍상 또한 교내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힘. 사실상 당초 의도대로 독립군·광복군 영웅 홍상 5개+1개를 이전하는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것임.
- 여기에 본래는 거론되지 않았던 대한제국 군인 출신의 박승환 참령까지 철거 대상에 덩으로 추가된 여기에 본래는 거론되지 않았던 대한제국 군인출신의 박

승환 참령까지 철거 대상에 덩으로 추가된 상황. 심지어 박승환 참령 홍상은 본래 충무관 내부에 있던 것이라 교문에 있던 것도 아니기에 해당 홍상까지 옮긴다는 것을 교정 내로 옮긴다는 5개의 홍상도 ‘사관학교 내 건물 내부가 아닌 어딘가로 치우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채널A: 홍범도 장군 등 홍상 철거하고 육사 내 ‘한미동맹 공원’을 조성하여 여 기에 뽀플리트, 맥아더, 백선엽 등 10대 영웅 동상을 만드는 계획안에 대해 보도.

2023년 9월 1일 (금)

-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김병주, 김영호, 기동민, 윤후덕) 육사 항의 방문
-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지청천장군기념사업회, 이회영 선생기념사업회 공동 홍상 철거 백지화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육사 앞 집회
- 국방부: ‘100면만에 고국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인생 풀스토리’ 유튜브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 영상은 오전 9시까지 확인할 수 있었음. 원래 영상에서는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들을 다루었음.
 - 이 유튜브 영상을 홍보하기 위한 페이스북 페이지 역시 같은 날 삭제됨.
 - 국방부 유튜브에 올라왔던 김좌진 소개 영상도 9월 1일 15시경 비공개되었다가 17시 30분쯤 다시 공개되었음.
- 뉴스 토마토: 홍범도장군 홍상철거 찬반 여론조사 (찬성 22.1% : 반대 65.9%)
- 고려인 동포: 리 류보비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 고려극장 총예술감독과 박드미트리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카자흐스탄 지사장 등 고려인 동포들은 9월 1일(현지 시간) 알마티 고려극장에서 홍상 이전 계획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짐.

2023년 9월 4일 (월)

- 이종섭 국방부장관: 홍범도함 함명 변경 재차 발언.

2023년 9월 5일 (화)

- 경향신문: 독립운동가 5인의 홍상 철거를 주도했던 육사 ‘기념물재배치위원회’의 실무 총괄자가 나종남 육사

군사사학과 교수였음이 밝혀짐.

- 특히 나종남은 뉴라이트 성향으로 평가받는 한국현대사 학회 창립준비위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교과서 현대사 집필진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와 군이 소련공산당 가입 이력을 문제 삼아 홍 장군 홍상 철거를 결정하면서 친일 전력이 있는 백선엽 장군의 웹툰은 복원시키는 등 독립운동사 지우기에 나선 배경에 뉴라이트 세력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임.

2023년 9월 7일 (목)

- 이장우 대전시장: 개인적으로 홍 장군 홍상이 육사에 있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유성구 국립대 전현총원 앞의 명예도로인 ‘홍범도장군로’의 폐지를 시사함.
 - 그러나 해당 명예도로 명칭의 폐지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장인 대전광역시장에게 있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장인 유성구청장에게 있으며,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결사반대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함.
- ‘독립영웅 홍상철거 백지화 및 책임자 처벌 한민족 100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 및 서명운동 돌입.

2023년 9월 10일 (일)

- 홍상 철거 백지화와 책임자 처벌 요구 대전시민 걷기대회

2023년 9월 12일 (화)

- SBS 김태훈 기자: “군사편찬연구소가 최근 국방부에 홍범도 장군의 생애를 높이 평가하는 문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단독 보도. 군사편찬연구소는 지난 7월 19일과 22일, 24일 각각 홍범도 장군 관련 문건을 작성해 지난달 국방부에 전달했고, 국방부는 이를 참고해 8월 28일 홍범도 장군 관련 입장문을 냈다고 발표.
 - 그런데 SBS가 입수한 군사편찬연구소 문건들의 내용이 국방부 입장문과 많이 달라 큰 논란이 예상됨. 군사편찬연구소 측은 SBS에 “그동안 연구 성과에 기반해 객관적으로 문건을 작성했을 뿐”이고 “해석은 국방부의 몫”이라고 밝힘.
 - 반면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편찬연구소 자료를 확인하고 그 입장을 제가 한번 확인하겠다”고만 대답함. “국방부의 입장문이 역사왜곡

이라고 지적받으면 뭐라고 대답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대답을 회피.

2023년 9월 15일 (금)

- 광복회: 광복군 창군 기념 추사 “일제의 머슴을 하던 이들이 국군의 원조라고?”
- 8월 25일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8월 28일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 홍상 철거 및 이전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며 아직 세부적인 방안이 결정된 건 아니라고 답변했으나, 육사는 그 이전인 8월 24일에 이미 홍상을 교외로 옮기기 위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마치고 트럭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됨.
- 독립운동가 지청천, 윤기섭, 이상룡 후손 ‘육사 명예 졸업장’ 반납

2023년 9월 17일 (일)

- 홍상 철거 백지화와 책임자 처벌 요구 서울시민 걷기대회 1
- 홍상 철거 백지화와 책임자 처벌 요구 광주시민 걷기대회

2023년 9월 24일 (일)

- 홍상 철거 백지화와 책임자 처벌 요구 서울시민 걷기대회 2

2023년 9월 27일 (수) ~ 10월 3일 (화)

- 추석 연휴
 - 서울역/용산역 홍상철거 백지화와 책임자 처벌 한민족 100만인 서명

2023년 10월 4일 (수)

- 육사: 육사 교내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 결정
 - 육사가 홍범도 장군 홍상을 옮기기로 한데 이어 홍범도, 안중근 등 독립 영웅의 이름을 딴 교내 독립전쟁 영웅실까지 없애기로 한 것으로 확인.

2023년 10월 6일 (금)

- 홍상 설치를 주도했던 김완태 전 육사교장(예비역 중장):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밝힌 바로는 홍상 설치 당시 “육사가 외부 지시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당시 교내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도 거쳤으며, 다섯 분의 독립영웅 홍상을 육사에 설치한 것은 국권을

강탈당한 상태에서 월급도 없고, 총기와 실탄도 주여지지 않는 악조건 속에서 목숨 바쳐 독립전쟁에 투신한 큰 업적이 있는 독립영웅들을 모셔 생도들에게 정신적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였다.”면서 “코드를 맞추거나 지시에 의해 행동했다면 지휘관 보직인 육사 교장에 부임한 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전역 조치를 당했겠나?”라고 밝힘.

2023년 10월 11일 (수)

-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2023년 10월 13일 (금)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육사 동상 철거와 관련된 질의에 “일본 대사관 앞에 안중근 홍상을 두면 그게 적절한 것이냐”며 반문.
· 일본 대사관과 육사를 동급으로 비교한, 다시 말해 육사가 일제 후예라는 식의 비난을 사실상 인정하는 식의 발언.
- 한시준 독립기념관장: 정부위 국정감사에서 “군의 정신을 제대로 함양하고 지도자들에게 그런 정신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홍상은 (육사에) 두는 게 좋다”라고 발언.

2023년 10월 14일 (토)

- 홍상 철거 백지화와 책임자 처벌 요구 마창진 시민 걷기대회

2023년 10월 16일 (월)

- 오세훈 시장: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동상을 육사에 그대로 두는 게 좋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말함.

2023년 10월 19일 (목)

-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를 ‘윤 대통령의 공만 큼 과도 만만치 않았다’며 인사 문제, 반민주적인 김기현 체제, 홍범도 홍상 철거 등 이념적 잣대를 꼽으며 “17% 차로 여당 완패는 대통령이 한 일에 대한 채점이 아니라, 대통령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반감의 산물”이라고 함.

2023년 10월 20일 (금)

- 이종찬 광복회장: 무명용사 추모제에서 군의 역사가 “의병 → 독립군 → 광복군”이 아니라 “조선경비대”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은 역사에 통탄할 일이라고 평가함.

2023년 10월 21일 (토)

- 홍상 철거 백지화와 책임자 처벌 요구 홍성군 시민 걷기대회
- 육사: 홍범도·김좌진·안중근 장군 등을 기린 육군사관학교의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에 돌입.

2023년 10월 22일 (일)

- 세계일보: 우당 이회영실도 철거에 돌입했다고 보도.
- 지난 7월 권영호 육사교장이 신원식 의원과 만난 후 홍범도 홍상을 육사 교내로 이전하는 방향에서 교외 이전으로 선회했다는 주장이 나옴.

2023년 10월 23일 (월) ~ 29일 (일)

-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장군 순국 80주년 국민 추모
· 추모도시 : 서울, 대전, 광주, 대구, 안산, 춘천, 알마티

2023년 10월 23일 (월)

- 육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방위에서 홍범도 홍상 이전 논란을 두고 여야가 충돌.
- 김태흠 충청남도 지사: 육사의 홍범도 장군 홍상 철거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 재확인.
-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국감에서 홍범도 홍상이 대적관을 흐리게 한다고 주장.
- 박민식 보훈부장관: 청산리 대첩 103주년 행사에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언급없이 넘어감.

2023년 10월 24일 (화)

- ‘육사 내 독립영웅 유공자 홍상 등 존치 국회 결의안’ 제출
·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181명 국회의원 서명
·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지청천장군기념사업회, 이회영 선생기념사업회,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대한고려인 협회 주관
- 밤 9시, MBC PD 수첩: ‘역사전쟁, 왜 홍범도 장군을 지우려 하나?’ 편 방영
-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홍범도함’의 이름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검토된 적 없고,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함.

2023년 10월 25일 (수)

- 홍범도장군 순국 80주기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3주년 기념식(국립대전현충원)
·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이기도 한 우원식 국회의원 “육군사관학교가 독립전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홍범도 장군)홍상 철거를 계속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것은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이고 독립군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홍상 철거를 반드시 막을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냄.
·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참석: 당초 차관이 참석해서 장관의 기념사를 대독할 예정이었지만, 80주기라는 의미를 감안해 직접 참석함.
그럼에도 비판론자들의 분노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음.

2023년 11월 1일 (수)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기동민, 윤후덕 의원과 홍범도 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의원: 육사 앞에서 독립군·광복군 홍상 이전 규탄 기자회견.

2023년 11월 3일 (금)

-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기존 홍범도장군 묘역에서 ‘홍범도장군 기념공원 및 거리’ 준공식
· 윤종진 국가보훈부차관 참석

2023년 11월 10일 (금)

- 신원식 국방부장관: 국회 예결산특별위에서 홍범도를 ‘불세비키’라고 지칭하면서 그의 홍상이 육군사관학교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거듭함.

2023년 11월 17일 (금)

- 우원식 의원: 국방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육사가 독립전쟁 영웅실과 전시품, 액자, 책자 등을 11월 30일까지 철거를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힘.

2023년 11월 30일 (목)

- 육사가 10월에 충무관에서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 시작했는데 결국 철거 완료됨. 홍범도 장군 홍상은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있음.

2023년 12월 20일 (수) ~ 25일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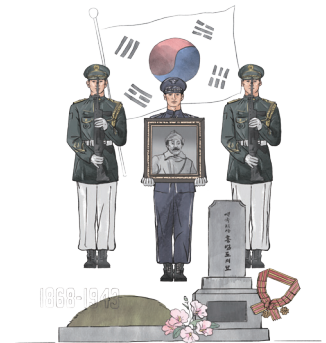
-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위대한 유산, 고려극장 설립 90주년 및 고려일보 창간 100주년 기념 전시-고려극장 수위 홍범도, 인사동에 오다! 전시회가 인사동 구구갤러리에서 열림.
· 본 전시회에서 1984년 크즐오르다 홍범도장군 묘역에 설치된 장군의 홍상을 1/2 크기로 3D 프린팅으로 구현하여 전시함.
· 개막식에서 우원식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육사에서 홍범도장군 홍상을 철거한다면 홍범도장군 홍상을 전국에 설치할 것이라고 소리높여 말함.

2023년 12월 21일 (목)

-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 홍범도의 행적이 우리나라 정체성 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 그러면서 조부의 조선 의용군 행적은 김원봉의 논란과는 별개라고 주장.

2023년 12월 25일 (월)

- 국가보훈부: ‘세계 속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선정한 2024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38명을 공개했는데 그중 1월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이 등재됨. 국민을 학살한 독재자이자 민주주의 파괴범인 이승만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정권이 1948년을 건국 시점으로 못 박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음.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으로 홍상 철거가 거론되는 홍범도의 사례와 비교된다는 지적도 나옴. 전신을 독립군 및 광복 군과 더 나아가 군대해산에 항거한 대한제국군과 이어보려 한 그간의 노력을 뒤집는 발언이라 할 수 있음.



홍범도 장군 홍상 철거 백지화 투쟁 현황 보고

홍범도 장군 홍상 철거 백지화 투쟁 성명서/기자회견문 모음

2023년 8월 25일

국방부의 독립전쟁 영웅 홍상 철거 시도, 독립운동을 부정합니까?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국회의원 우원식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육군사관학교 교내에 있는 독립운동가 홍상 철거를 인정 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육군사관학교에서 육사 교내 기념물을 정비 이유로 육군사관학교는 장교 탄생의 요람인데 ‘공산주의 경력의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하는 문제의식과, ‘굳이 독립운동 관련 인물 보다는 육군 창설 등 군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 속에 철거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현재 육군사관학교 충무관 중앙현관에는 홍범도 장군 이외에도 지청천, 이회영, 김좌진, 이범석 장군의 홍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중 공산당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것은 홍범도 장군뿐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에 가입한 경력이 있기는 하지만 공산당 활동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홍범도 장군의 활동은 오직 조국의 독립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1922년 해방을 위해 각국 지도자들과 교류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대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대회 참석을

위해 소련에 입국할 당시 작성했던 조사서를 보면 ‘직업’은 ‘의병’, ‘목적과 희망’은 ‘고려독립’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은 1927년해야 이루어 졌는데 당시 소비에트 영토 내의 집단농장 지도자였고, 같이 독립운동했던 동지들과 함께 사는 상태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강합니다. 또한 국적을 얻어 토지를 받고 본인 역시 60세가 임박한 고령에 연금 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생활상의 부득이한 이유였습니다. 이런 이유 외에 홍범도 장군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비롯한 소련 공산당 활동에 적극 관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홍범도 장군은 일본군과의 무장투쟁 중에 아내와 두 아들 등 전 가족을 잃은 크나큰 비극을 겪었고, 1937년 스탈린의 한인 강제이주 정책에 의해 머나 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당한 후 1943년 76세의 나이로 타계하실 때까지 외롭고 불우한 말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홍범도 장군은 빼앗긴 조국을 독립시키려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였을 뿐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해방 전인 1943년에 이미 서거하셨으며,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 당시인 1962년에 이미 건국훈장을 수여하며 독립정신을 기린 바 있습니다. 만주 군관학교와 군인 출신인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미 정리된 논점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내용을 꺼내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논점인 ‘가능하면 육군 창설 등 군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을 세우겠다’라는 인식 또한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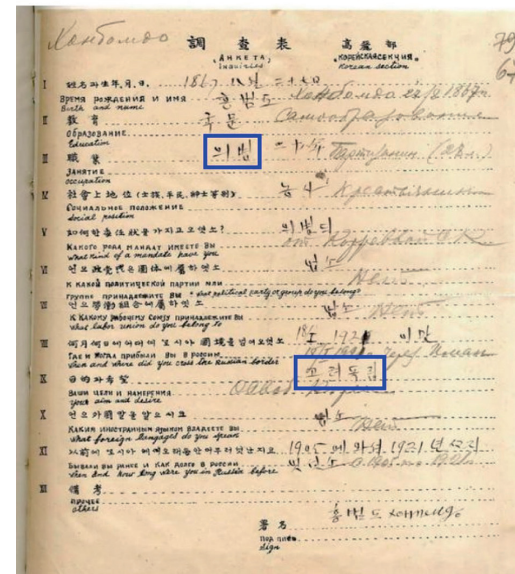
홍상 재배치를 계획하며 독립전쟁보다는 육군의 창군 이후 영웅들을 기리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이 계승한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정통성과 우리 육군의 뿌리인 광복군을 부정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처사이며,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납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논란이 되었던 ‘건국절’ 논란과도 유사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성과 선열들의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민족반역자인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 탈바꿈 하려는 ‘역사세탁’이 바로 건국절 주장의 본질이었고 이번 홍상 철거 논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전쟁의 영웅 홍상을 철거하고 독립전쟁의 역사를 지우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헌법적 발상으로 독립전쟁의 역사를 훼손하려는 만행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자필로 쓴 출입국 카드 직업 “의병” 목적과 희망 “고려독립”



2023년 8월 30일

항일독립전쟁 5영웅 홍상 철거 백지화 및 책임자 처벌 요구 기자회견

| 일 시 | 8월 30일(수) 14시
| 장 소 | 전쟁기념관 6.25 기념탑 앞

국방부發 역사쿠테타 당장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시민모임독립·
대한고려인협회·카자흐스탄 독립운동가 후손 청년회

윤석열 정부 국방부는 독립전쟁 영웅에게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 씌워 역사에서 지워내려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항일독립전쟁 영웅 다섯 분의 홍상 철거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독립운동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헌법적 행위를 지시한 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 분의 홍상은 그냥 세운 것이 아닙니다. 대한독립군과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고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철거 시도는 독립군과 광복군을 국군의 뿌리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이기에 국민이 저항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에게 묻겠습니다. 한국군의 전사(前史)에서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지워버리면, 국군의 정통성은 어디서 찾는다는 말입니까? 국군 창설 이후의 역사만 기리겠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도 부정하는 것입니까?

광복을 세계 2차대전 이후 전후 처리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빼앗긴 날부터 독립을 되찾는 날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 이겨낸 결과입니다.

우리에게는 빛나는 ‘독립전쟁’의 역사가 있었고 봉오동

전투·청산리대첩이라는 자랑스러운 승리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조국 독립만을 외치며 목숨바친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 그리고 수 많은 무명용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홍상 철거 문제를 두고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다하신 독립전쟁 영웅의 명예를 더럽히고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것은 평소 독립운동가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있는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2년 전 광복절에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6대가 홍범도 장군의 귀환길을 엄호한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뭉클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었던 잊지못할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독립전쟁 영웅들의 홍상철거와 홍범도 장군에 대한 사상검열은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감동과 애국심이 잘못됐다고, 지우라고 강요하는 꼴입니다.

이제 구체적 근거도 없이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참변과 연관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독립전쟁 1차 대승리로 기록된 청산리·봉오동전투를 김일성과 관련된 빨치산 전투처럼 둔갑시킨 국방부·역사 쿠데타를 국민들께서 진압해주실 차례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보편적 역사의식을 이길 정치 권력은 없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의 품에 보내는 것은 카자흐스탄 정부와 고려인들의 큰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의 서운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최상의 예우로 끝까지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윤석열정부는 홍범도 장군을 명예롭게 생각하며 척박한 땅에 뿌리내린 고려인들의 가슴에도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고국의 품에서 안식하신지 불과 2년이 지났습니다. 국권을 잃고 만주로, 연해주로 떠돌며 오로지 조국의 독립만을 외치다 타국만리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해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던 홍범도 장군의 홍상마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리저리 떠돌게 할 수 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3년 9월 7일

독립전쟁 영웅 홍상 철거 백지화를 위한 한민족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대한고려인협회

육군사관학교가 교내 총무관 앞에 있는 항일독립전쟁 영웅 다섯분의 홍상을 철거하는 것은 국군과 독립군, 광복군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이며, 대한민국 국군은 임시정부의 군대였던 독립군과 한국광복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적 상식입니다. 육사가 독립군 양성 기관인 신흥무관학교를 자신의 뿌리로 삼는 것이 육사의 정체성과 무엇이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육사는 최종적으로 소련공산당 입당 경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홍상은 육사 밖으로 내쫓고 나머지 네 분의 홍상 또한 육사 내 박물관으로 옮기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애초에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청산리 전투의 영웅 김좌진,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자 한국광복군 참모장을 지낸 이범석 등의 홍상을 함께 철거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육군 사관학교의 정신적 뿌리는 국방경비사관학교로 보고 있다”고 실토했습니다. 신흥무관학교, 독립군, 광복군을 국군의 뿌리로 인정하고 싶지않은 윤석열정권의 역사관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게는

독립전쟁 영웅들의 홍상은 눈엣가시였던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이라며 내쫓고 나머지 네 분도 박물관에 넣어버리려는 이유가 육사의 뿌리를 다시 만주군관학교로 두기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군대는 국민을 보호하고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의병과 독립군으로 평생을 일제에 맞서 싸웠고, 특히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항일독립전쟁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삶을 사관 생도들이 기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과연 누구를 기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침략자로부터 끝까지 나라를 지켜낼 지휘관을 양성하는 요람이어야 할 육군사관학교가 그의 홍상이 있어서 아니 될 곳이라면 그 육군사관학교는 대체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독립전쟁 영웅 홍상 철거 백지화를 위한 한민족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 장군을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묘역을 보살펴온 고려인을 포함한 전세계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한민족 동포들의 서명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명운동 기간 동안 홍상철거 백지화의 염원을 담은 △전국 시민 걷기 대회, △릴레이 1인 시위, △규탄대회 등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100만 서명을 통해 독립전쟁 영웅들의 홍상 철거 백지화와 책임자 처벌,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 법제화 등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민중들이 써왔습니다. 500년 조선을 지탱해온 것은 백성들이었으며, 왕이 나라와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쳐도 의병이 되어 왜구와 맞선 것은 민초들이었습니다.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한 권력자들이 나라를 일본에 넘겼 음에도 조선의 민중들은 쉬지 않고 투쟁했습니다.

우리 모두 2023년 역사전쟁의 독립군이 되어 역사의

퇴행을 막아냅니다. 독립전쟁 영웅들을 지키고 대한민국 정체성도 지켜냅시다!

2023년 9월 27일

헌법 수호 자격 없는 신원식 후보자, 즉각 사퇴하라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국회의원 우원식

오늘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신원식 후보자가 육군사관학교 교내에 있는 독립전쟁 영웅 홍상 철거를 다시 한번 공식화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 활동을 했기에 홍상 철거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반복합니다. 몇 번이고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에 가입한 경력이 있기는 하지만 공산당 활동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홍범도 장군의 활동은 오직 조국의 독립이었습니다.

자유시참변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87년, 94년, 97년 보훈부와 국방부 소속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에서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참변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신 후보자가 제기하는 모든 논란이 이미 역사학계에서 검증이 끝난 사실입니다.

육군 출신의 박정희 정부를 비롯한 지난 모든 정부에서 홍범도 장군을 독립영웅으로 추서하고 그 공적을 인정한 것은 홍범도 장군은 빼앗긴 조국을 독립시키려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였을 뿐 공산주의자는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윤석열 정부만이 그 상식을 깨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65%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식에 반하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다하신 독립전쟁 영웅의 명예를 더럽히고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것을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북한 공산주의와 싸워서 나라를 지킨 육사가 홍 장군

에게 졸업장을 준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며 졸업장도 문제도 재논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국군이 홍범도 장군의 위업과 독립전쟁의 전통을 계승해 호국정신으로 승화 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지고자 추서한 졸업장입니다.

육군사관학교의 뿌리는 명백히 독립군, 광복군입니다. 그 사실을 무시하고 지워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었던 홍범도 장군에게 명예졸업장을 주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다섯 분의 홍상은 그냥 세운 것이 아닙니다. 대한독립군과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고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철거 시도는 독립군과 광복군을 국군의 뿌리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이기에 국민이 저항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역사왜곡, 말만 하면 극우망언인 천박한 극우 유투버에게 국방의 수장을 맡길 수 없습니다. 신 후보자는 헌법이 계승한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정통성과 우리 육군의 뿌리인 광복군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제의 식민지배가 없었다고 해서 우리가 더 행복했겠냐며 식민사관까지 드러냈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천박한 역사의식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50만 대군을 이끌며 우리 국토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신원식 후보자는 그러한 자격과 품결이 없습니다. 당장 사퇴하십시오.



2023년 10월 24일

육사 내 독립영웅 홍상 등 존치 촉구를 위한 국회 결의안 발의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백산지청천기념사업회

시민모임 독립·대한고려인협회

카자흐스탄 독립운동가후손 청년회

육사 내 독립영웅 홍상 존치 촉구를 위한 국회 결의안

발의 의원 일동

윤석열 정부가 국군의 정통성과 독립전쟁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끝내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홍범도·지청천·이범석·김좌진 장군, 이회영 선생 다섯 분의 홍상 철거계획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충무관에 있는 항일투쟁 장군을 기리던 '독립전쟁 영웅실'을 일방적으로 철거 단행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역사 반란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국가이고, 대한민국 국군은 임시정부의 군대였던 독립군과 한국광복군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립전쟁 영웅 다섯 분의 홍상을 육군사관학교에 세운 의미는 봉오동 전투·청산리 대첩이라는 자랑스러운 승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빛나는 '독립전쟁'의 주역들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충무관에는 독립전쟁영웅실을 만들어 육군 장교 양성기관인 육사의 정체성이 독립군 양성기관이었던 신흥무관학교에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독립운동단체를 포함해 국민 대다수의 반대 여론에도 윤석열 정부가 철거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무엇을 위해 편협한 이념의 잣대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다 하신 독립전쟁 영웅의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번 국회 결의안에 함께한 야4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홍상 및 독립전쟁 영웅실의 철거 중단과 복원을 촉구하고,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가적 논의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담은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항일 독립전쟁 영웅 다섯 분의 홍상철거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기 바랍니다.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독립영웅실을 원상 복구하기를 촉구합니다. 역사쿠데타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 사진 출처 : 스트레이트뉴스

[결의안 원문]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등 존치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10. 21.

발 의 자 : 우원식 등 국회의원 181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지청천·이범석·김좌진 장군, 이회영 선생 흉상철거 시도 및 관련 역사왜곡 발언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국군의 정통성과 독립전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육군사관학교가 추진하는 홍범도·지청천·이범석·김좌진 장군, 이회영 선생 흉상철거 및 이전과 관련하여 모든 계획을 중단하고 흉상을 현 상태로 존치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육군사관학교가 추진하는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와 관련하여 모든 계획을 중단하고 충무관 내의 영웅실을 복구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독립전쟁 영웅 등 독립유공자들의 역사를 기리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대한독립군과 광복군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 법제화 등을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지금으로부터 103년 전인 1920년은 이른바 독립전쟁의 해로 10월에는 김좌진, 이범석 장군 등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군과 홍범도 장군이 지휘하는 대한독립군 등을 주축으로 한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의 연대장을 포함한 1,200여 명을 사살하고 승리한 청산리 대첩이, 6월에는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 부대가 일본 정규군 1개 대대를 대패시킨 독립전쟁 제1차 대승리인 봉오동 전투가 있었음.

이처럼 우리에게서 봉오동 전투·청산리 대첩이라는 자랑스러운 승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빛나는 ‘독립전쟁’의 역사를 기리고자 그 주역들인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과 이회영 선생을 기리기 위해 육군사관학교 교내 충무관 앞에는 다섯 분의 흉상이 세워져 있음.

흉상이 육군사관학교에 세워진 의미는 대한민국이 헌법에 따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국가이며, 대한민국 국군은 임시정부의 군대였던 독립군과 한국광복군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리고, 또한 육군 장교 양성기관인 육사의 정체성이 독립군 양성기관이었던 신흥무관학교에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기도 함.

그런데 최근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의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을 철거하려 하고 있음. 육군사관학교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육사 밖으로 철거하고 나머지 유공자의 흉상 또한 육사 내 박물관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던 중 관련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논란이 촉발됨.

하지만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철거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반대 여론이 확인되고 있음. 그 이유는 흉상철거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다 하신 독립전쟁 영웅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며,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흉상철거 계획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고, 국군과 독립군, 광복군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反헌법적 발상인바, 이와 같은 독립전쟁의 역사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함.

이에 독립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지청천·이범석·김좌진 장군, 이회영 선생 흉상을 현 상태로 존치할 것을 촉구하고,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가적 논의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위와 같이 결의함.

2023년 11월 17일

육사 내 독립영웅 홍상 및 독립영웅실 완전 존치 촉구를 위한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관련 독립운동유공자단체 기자회견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백산지청천기념사업회·시민모임 독립·대한고려인협회
카자흐스탄 독립운동가후손 청년회·국회의원 우원식

오늘은 제85회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선열들의 거룩한 위훈을 기리는 뜻깊은 날을 맞아 홍범도 장군님을 비롯한 독립영웅 다섯 분의 홍상철거 이전과 독립전쟁영웅실 철거 전면 백지화를 위해 여러 독립운동 단체가 이곳 국회에 다시 모였습니다. 먼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신을 초개와 같이 버린 수많은 순국선열께 한없는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바칩니다.

윤석열 정부가 독립전쟁영웅 홍상철거를 올해 안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의 행동과 지지 속에 연초부터 계획돼 이미 9월에 예정되어 있던 홍상철거를 일단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홍상철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육사에 홍범도 장군 홍상이 배치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여전히 공산주의자라고 깎아내립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한 모욕을 계속합니다. 육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홍상철거 재추진 의사도 밝혔습니다.

또 11월 30일까지 육군사관학교 충무관 내의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를 마무리 짓겠다고 합니다. 육군사관학교에 따르면 홍범도·지청천·이범석·김좌진 장군, 이회영 선생과 안중근 의사 이름의 여섯 실로 구성된 독립전쟁영웅실의 명칭과 명패, 구성 전시물을 모두 철거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베트남 전쟁사, 6.25 전쟁사, 해외 파병사 등 시대별 국난극복사를 학습하는 공간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지난 세기 우리 선열들께서 펼치신 독립전쟁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특히 홍범도 장군님을 비롯한 선열들께서 러시아, 만주, 중국 등지의 이름 모를 산하에서 풍찬노숙하시면서도 오로지 구국의 일념으로 온갖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조국의 독립에 대한 열정과 불굴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무리한 홍상철거 추진과 이번 독립 전쟁영웅실 철거에서 보듯 한국군의 전사(前史)에서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지워버리려 합니다. 조국의 독립으로부터 시작된 국군의 정통성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국군 창설 이후의 역사만 기리겠다고 하는 꼴입니다. 친일사관을 가진 뉴라이트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광복은 우리 선조들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날부터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날까지 빛나는 ‘독립전쟁’의 역사 속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 이겨낸 결과입니다. 고아, 머슴, 군대 나팔수, 제지공장 노동자, 사찰의 식객승, 백두산 포수로 살면서 나라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던 홍 장군과 같은 분들이 평생을 일본과 싸워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독립투사가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으로 강제로 이주당하셨습니다. 홍 장군 역시 그곳에서 인생의 말년을 극장의 수위로, 방앗간의 노동자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많은 선열이 겪어야만 했던 강제이주의 아픔을 이 대한민국 땅에서 다시 겪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이념논쟁을 멈춰야 합니다. 올해 철거를 안 한다는 것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국민의 70% 가까이가 반대하는 이 사안이 내년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염두에 둔 정략적인 태도일 뿐입니다. 민심은 홍상 ‘완전존치’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순국선열의 날은 일본의 조선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맞서 헌신한 독립운동 유공자들 가운데 목숨을 잃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뜻깊은 날입니다. 하지만 독립영웅 홍상철거 논란으로 홍 장군님께서 78년 만에 돌아온 고국 땅에서 여전히 편히

잠들지 못하고 계십니다.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여러 선열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홍범도 장군은 육사 밖으로 내쫓겨 78년 만에 돌아온 고국 땅에서조차 편히 잠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회영 선생,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도 박물관에 갇히게 됩니다. 국권을 상실한 뒤 거센 바람을 마다치 않고 온몸을 헌신하셨던 선열들을 이렇게 모실 수는 없습니다.

일제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든 이들 독립전쟁

영웅의 살아있는 정신을 육사 생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홍상은 우리 국군의 간성을 교육하는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홍상철거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다 하신 독립전쟁 영웅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헌법정신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통은 임시정부이고, 의병과 독립군, 광복군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국군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또 홍범도 장군님의 동지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스러져 간 무명용사들의 혼령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홍범도장군기념공원 준공식

카자흐스탄 홍범도장군기념공원 조성 경과

편집위원회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된 지 2년여 만에 장군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던 카자흐스탄 현지 묘역이 기념공원으로 새롭게 단장됐다.

카자흐스탄 홍범도 장군 묘역은 고려인 동포사회에서 장군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되기 전까지 40여 년 동안 장군에 대한 추모의 공간이자 고려인 동포사회의 구심점으로서 정성껏 관리해왔다. 2021년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한국으로 봉환 당시 한국 정부는 크즐오르다의 홍범도 장군 묘역터에 고려인 동포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홍범도 기념공원’ 건립을 약속했었다.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 준공식은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 및 우원식 의원(홍범도 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윤주경 의원(윤봉길 의사 손녀), 크즐오르다 고려인협회 회장, 주알마티 총영사관 관계자, 고려인 동포 등 6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3일(금)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열렸다.

이번에 개원하는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은 부지면적 1,067㎡(323평)에 참배 공간과 전시관, 야외 휴게공간이 조성되었다.



▲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 조감도



▲ 참배공간



▲ 전시공간



▲ 휴게 공간



▲ 홍범도 홍상

세부적으로, 독립전쟁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 중 하나로 평가받는 봉오동 전투의 지세를 형상화한 참배 공간을 비롯해 홍범도 장군과 계봉우 지사의 삶과 독립운동 공적을 전시하는 전시관*, 그리고 조경과 차양 심터가 있는 휴게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사업비 7억 원은 전액 국비가 지원됐다.

*전시관: 홍범도 장군 묘역 기념공원 내 계봉우 지사의 홍상(묘역, 배우자 합장)이 있어 홍범도 장군과 계봉우 지사 두 분의 공적을 함께 전시

이 가운데 홍범도·계봉우 전시관의 경우, 현재 전시물을 제작하고 있으며 2024년 6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장군이 거주하던 집 인근 3km의 ‘홍범도 거리’*는 표지 기념석 설치(2곳) 등의 정비를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홍범도 거리: 홍범도 장군 사후에 러시아 당국이 장군의 집 근처 거리를 ‘홍범도 거리’로 개칭





홍범도 장군 묘역 역사

<1943~1944년>

- 1943년 10월 25일, 홍범도 장군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서거
- 독일-소련 전쟁 중
- 집 근처 묘 임시 조성

<1945~1981년>

- 제2차세계대전 종료
- 크즐오르다 중앙공동묘지 이장
- 1951년 10월 25일 서거 8주년에 이인섭 동지 등 “홍범도 장군 분묘 수리위원회” 조직, 시멘트로 된 분묘, 철장, 철비(현재는 없음) 건립

<1982~2020년>

한국의 무관심 속 고려인 동포와 카자흐스탄이 장군의 묘역 지켜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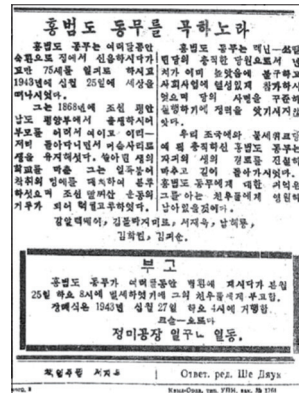
- 1982년 4월 25일, 중앙공동묘지의 뒤편에서 현재의 넓고 좋은 위치로 이장
- 1983년 10월 25일, 서거 40주년을 맞아 레닌기치신문 부주필 김국천 등 “홍범도 장군 추모비 건립추진회” 조직, 모금 착수
- 1984년 10월 25일, 홍범도 장군의 반신청동상과 추모비 건립
- 1996년 5월 20일, 한국 정부와 기업 제공 기금으로 홍범도 장군 홍상 주변에 3개의 기념비를 추가 건립, 묘역 조성·단장 - 현재의 모습
 - ① 1937년 강제이주 기념비
 - ② 1995년 광복 50주년 기념비
 - ③ 1997년 강제이주 60주년 기념비

<2021년>

- 8월 15일, 유해봉환
- 8월 18일, 국립대전현충원 제3묘역 안장

<2023년>

- 11월 3일,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 준공



▲ <홍범도 장군 부고 : 「레닌의 기치」>
1943년 10월 27일자,
고려일보 한국 특파원 채예진 이사 제공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홍범도장군기념공원 준공식

홍범도장군기념공원 준공식 참석 후기



박석봉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

홍범도 장군께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묻혀 계셨던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대한민국 정부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안치되었던 곳을 기념공원으로 조성하였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는 이사장 우원식 의원과 두 분의 이사, 그리고 국회의원 유준경, 이용빈, 조오섭 의원과 함께 홍범도 장군 묘역 기념공원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와 크즐오르다를 방문하였다.

2023년 10월 31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에 내리니 만년설로 뒤덮힌 텐산이 장엄하게 펼쳐져 있었다. 가슴을 확 펴고 시원한 공기를 깊이 들여 마셨다. 텐산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지켜왔을 것이다. 이 땅에서 살아온 홍범도 장군과 고려인 동포들의 한 맺힌 삶을.....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대전현충원으로 봉환 이후,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들이 홍범도 장군을 추모하고 기릴 수 있도록 기념공원으로 조성하는 데에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는 봉오동 전투를 기념하고자 봉오동 형상으로 조성하자고 건의했으나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기념공원은 출입문에 '통일문'이라 쓰여 있었고, 약 300평 규모로 장군의 홍상, 비석, 참배공간과 전시관(미완성), 휴게공간으로 조성되었고 계봉우 선생 홍상도 함께 모셔 있었다.

11월 3일 준공식 참석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카자흐스탄에서 만난 현지 고려인 동포들이 생각하는 홍범도 장군과, 현재 조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홍범도 장군 홍상 철거 논란에 대한 그분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현장에 있었다는 박 드미트리, 대한민국 평화통일 자문위원이면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카자흐스탄 지사장은 “유해봉환 당시 홍범도 장군이 아름다운 독립된 조국의 품에 안겨 영면하시리라 생각하면서 마음 뿌듯해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자랑스럽게 느꼈다. 카자흐스탄 국민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다”.

“다섯 분의 독립전쟁 영웅 중에서 홍범도 장군의 홍상만 철거한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렇다면 공산당원이었던 돌아가신 나의 부친도, 옛 소련에서 태어나고 인생의 절반 정도를 소련 체제 속에서 살았던 나와 같은 50만 동포도 제거의 대상이란 말인가.

21세기에 공산당도 소련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지 30여 년이 넘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를 고려인이라 부르지 말고 동포라 불러달라. 같은 민족 아닌가”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면서 울분을 토하였다.

또한 홍범도 장군 유해를 고국으로 모시기로 결정할 때 큰 역할을 한 원로 어르신 김도만 선생, 카자흐스탄 전 하원의원은 “홍범도 장군 홍상을 1cm라도 옮기면 내가

조국으로부터 받은 훈장을 모두 반납하겠다”며 분노를 삭히지 못하였다.

홍범도 장군 묘역 기념공원 준공식을 마치고 이를 기념하는 고려인 동포들의 저녁 행사에 초대받았다. 여기에 참석한 고려인 동포들은 한결같이 홍장군을 말할 때마다 맨 먼저 ‘우리’라는 단어를 붙여 ‘우리 홍범도 장군’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우리 홍범도 장군이 돌아가셨던 크즐오르다에서 태어나 자랑스럽다”

“우리 홍범도 장군은 가장 자랑스런 대한독립군 대장이셨다”

“우리가 고려인이라는 증거는 바로 우리 홍범도 장군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유해봉환 전에는 왜 우리 홍범도 장군이 그토록 밟고 싶어했던 고향 땅에 묻혀 있을 수가 없는지 그저 안타까웠는데 유해봉환 된 뒤 조국에서 들려 오는 소식을 듣고 있으니 뭔가 알 듯한데, 누가 왜 그러지는 묻고 싶다.

이곳 고려인 동포들의 가슴은 미어진다” 라는 얘기들이 계속 이어졌다.

이처럼 카자흐스탄 동포들은 모두 다 홍범도 장군을 구심점으로 장군의 항일 독립 투쟁 정신을 가슴에 담고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었기에 홍범도 장군 홍상철거 논란에 대한 소식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것이다. 그분들에게는 고려인 동포라는 증거, 대한민국이 모국이라는 증거가 홍범도 장군이기 때문이다.

조국을 빼앗겨 강제이주 당했고 소금물이 흐르는 사막의 땅, 중앙아시아 한 복판에 던져졌으나 홍장군님의 항일 독립투혼과 삶의 의지를 승화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런 동포를 만난 시간들이 나에게서 뭐라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시간이었다.

일제강점기에 25년 이상을 한결같이 일본군을 상대로 전투를 한 군인이 있었겠는가? 나라를 빼앗겨 울분에 찬 한 사나이가 국가나 정부에 의한 군인이 아닌 일반 평민을 모아 자발적으로 무기와 식량을 준비하고 의병, 독립군을 조직하여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전투를 한 홍범도 장군, 아내와 두 아들까지 희생당하며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고 목숨을 내놓고 싸운 홍범도 장군의 리더십과 불굴의 독립정신은 현재 대한민국 군인에게 이어져야 할 정신이다.

일제 강점기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 전쟁에서 목숨 바친 수많은 항일 독립투사들의 독립투혼이 있었기에 조국을 찾을 수 있었고, 그 독립한 국가를 지키기 위해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에서 수많은 이름 모를 영웅들이 목숨을 바쳤다. 그들의 호국투혼이 있었기에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켜낼 수 있었지 않았는가!

지금 우리에게서 국권이 못미치는 빼앗긴 영토, 암흑의 땅이 있지 않는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막중한 국군의 사명(헌법5조)을 완수하는데 독립영웅의 투혼과 호국영웅의 투혼은 대한민국 국군에게 가장 중요한 정신이다. 목숨 걸고 빼앗긴 나라를 찾고 지키려는 독립 투혼과 호국 투혼이 바로 군인정신의 핵심인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사관생도 뿐만 아니라 장교를 꿈꾸는 모든 이들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총을 들고 일본 정규군과 싸워 승리한 장군, 홍범도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1년 8월 15일 대한민국 공군은 홍범도 장군의 귀환을 호위하였다.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필승!”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국립대학교 지능정보대학 신설 사업

크즐오르다국립대학교 지능정보대학 신설 사업 소개



▲ 크즐오르다국립대학교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는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후속 사업으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의 우호증진과 카자흐스탄 등 CIS 지역 및 한국에 거주 중인 동포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크즐오르다국립대학교 지능정보대학(현재 개설학과 3개에서 5개로 증가 시 홍범도장군 칼리지 명칭 부여 예정) 설립을 추진해 성과를 내었다.

그 성과를 카자흐스탄 정부와 현지 동포 단체와 공유하고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11월 3일 우원식 의원(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윤주경 의원, 이용빈 의원, 조오섭 의원 및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임원들이 크즐오르다국립대학교 지능정보대학 설립 기념행사에 다녀왔다.

이 기념행사에서 우원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은 크즐오르다국립대학교 명예교수로 추대되었다.

<사업 주요 내용>

- 사 업 명 : (국문) 크즐오르다국립대학교 내 내 IT 관련학과 리모델링 및 지능 정보대학 신설
(영문) IT-departments Remodeling and Creating New School of AI and Informatics
- 대 학 명 :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국립대학교(Korkyt Ata Kyzylorda State University)
- 사업목표 : 크즐오르다국립대학교 내 지능정보대학 설립
- 사업내용 :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국립대학교 내 기존 3개의 IT 관련학과(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정보보안학과)를 확대 개편하여 지능정보대학을 신설함으로써 첨단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온 21세기형 융복합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설계

2023 특별기획

민족 영웅 홍범도 장군의 삶과 투쟁(4)



반병률 홍범도아카데미 원장/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

홍범도와 이동휘

홍범도는 (대한)독립군정부 부장인 이동휘와 오래전부터 독립운동노선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여 왔다. 정태(본명 정용규)에 따르면, 체코군의 봉기(1918년 6월말) 이후 득세한 백위파와 일본군을 피해 중국 보청에 은신하고 있던 이동휘가 1918년 9월 밀산에 머물고 있던 홍범도를 찾아와 오랫동안 담화를 나누고 갔다고 한다.

이외에도 3.1운동 전후 시기에 이동휘와 홍범도가 긴밀하게 독립운동방안을 논의한 사실은 여러 기록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서간도에 근거를 둔 독립단 군대의 노령 이동과 관련한 독립단 간부 윤철규의 회고가 대표적이다. 105인 사건의 연루자였던 윤철규의 회상에 따르면, 독립단은 노령으로 이동하여 무기를 확보하고 무장투쟁을 계속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수차례에 걸쳐 연해주로의 '도수부대'를 파견하기로 하였다.

윤철규는 조맹선, 양기택, 최영호 등 독립단 간부들의 사명을 받아 연해주 수이푼(秋風) 지역(우수리스크 일대) 당어재골(신길동)으로 홍범도를 찾아가다. 홍범도는 권유하기를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 머물고 있는 이동휘를

만나라고 했다. 이동휘는 이미 수이푼 지역에 와서 홍범도와 그의 오랜 전우인 전대복, 박운봉 등을 만나 독립운동방안을 논의하고 돌아갔다고 한다.(전대복과 박운봉은 각각 홍범도의 '좌익장', '우익장'으로 알려진 핵심측근) 이동휘는 남만주에 있는 독립군 군대 전부를 연해주로 이전시켜 홍범도를 총사령관으로 한 조선독립군을 조직하여 러시아 혁명세력과 연대하자고 했다고 한다. 이후 윤철규의 보고를 받은 독립단 지도부에서는 이동휘와 홍범도 지시를 실행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한독립군(의용)대장 명의를 「유고문(諭告文)」 선포

1919년 12월 홍범도는 '노령주둔 대한독립군대장' 명의로 참모 박경철, 이병채와 더불어 3인의 명의로 「유고문(諭告文)」을 반포하여 그 조직을 대내외에 알렸다. 박경철은 북간도의 대한국민회에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위하여 "참모장으로 지정하여" 준 인물이고, 이병채는 한말 의병 시절 이래 홍범도와 허근(허재욱)의 오랜 의병 동지였다.

이 「유고문」을 통하여 홍범도는 항일무장투쟁노선을 천명하였다. 정의인도를 주창하는 평화적 시위.만세운동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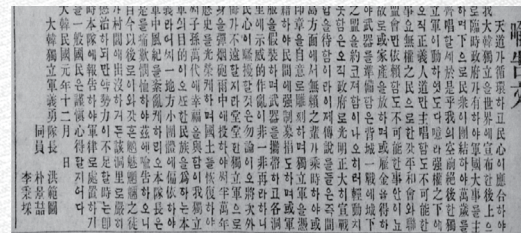
이나 파리강화회의나 국제연맹에서의 외교적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무장투쟁에 의해서만이 독립달성이 가능하며, "군국대사를 주도하는" 상해의 임시정부의 "광명정대한" 선전포고를 기다려 독립전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유고문(諭告文)」은 『독립신문』 1920년 1월 13일 자에 게재되었는데 홍범도는 '대한독립군의용대장' 명의로, 박경철과 이병채는 '대원' 명의로 발표되었다. 1919년 11월 3일 상해 통합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취임한 이동휘와의 교감에 의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유고문에는 또한 1919년 하반기 당시 북간도를 비롯한 만주지역에서 독립군을 가장하여 한인들로부터 군자금을 모금하는 폐단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의 뜻도 담겨 있었다.

이 두 종류의 「유고문」에서 짚어볼 것은 홍범도가 '대한독립군 의용대장', 그리고 '노령주둔 대한독립군 대장'의 두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다. 우선 앞에서 언급한 바, 이동휘가 이끄는 독립군정부에서 홍범도를 대한 '독립군총사령관'에 임명한 사실과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홍범도는 자신의 부대를 '대한독립군'이라고 하는 한편, 구성원의 중심이 과거 의병출신들이었다는 점에서 '의용대'라는 성격을 강조하여 다른 독립군 조직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독립군들은 자신들을 '의병' 또는 '의용병'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북간도 대한국민회의 전폭적 지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은 북간도의 유력한 한인단체인 (대한)국민회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갖고 활동하게 된다. 홍범도를 대한 '독립군 총사령관'에 임명한 '독립군정부'의 이동휘는 회장 구춘선을 비롯한 국민회 지도자들과 1910년대 이래의 오랜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 일본측 첩보에도 홍범도는 이미 하마탕(哈碼塘)에서 국민회 회장 구춘선과 회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대한독립군의 「유고문」에 '참모' 또는



▲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유고문(1919년 12월) 독립신문 1920년 1월 13일자 3면

'대원'으로 명의를 올린 박경철은 1910년대 명동학교 교사 등으로 활동한 북간도의 중견지도자로서 국민회에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에 파견한 인물이었다.

홍범도가 의병 106명을 무장케 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위해 북간도로 발진한 것은 1919년 10월 1일(음력 8월 8일)이었다. 그리하여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은 이후 수청(현재의 빨찌산스크 일대)에서 백위파와 싸우다가 도피해 와서는 동행을 간청한 러시아인 빨찌산 세 명과 함께 중국 훈춘(琿春)의 차모정자(草帽頂子)로 들어갔다. 홍범도군대는 차모정자 서쪽 골짜기의 한민촌에서 주둔하던 중 습격한 홍후즈(紅鬍賊, 중국 마적) 70명을 처치하고 홍후즈 90명을 잡고 총(50개), 탄약(1,200개), 아편(여섯 봉지), 천(190자), 대양화(300원)와 일화(700원)를 전취했다. 다음날 홍범도 부대는 밤에 라자거우(羅子溝) 하마탕의 '예수촌'에 들어가 무장을 벗고 주둔하였다. 때는 1919년 12월 6일(음력 10월 14일)경이었다.

3.1운동 이후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무장단체들의 통합은 절실한 과제였다. 이는 상해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휘를 중심으로 1920년을 '독립전쟁의 해'로 선포한 임시정부의 방침과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하마탕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 홍범도는 '대한독립군 의용대장'의 자격으로 1920년 3월 8-10일 3일에 걸쳐 하마탕 상촌(上村)에서 개최된 독립군 단체 대표들의 회의에 참여하였다. 이 회의에는 대한국민회장 구춘선을 비롯하여 대한독립군 의용대장 홍범도, 광복단장 이범윤, 김광국, 홍림, 서성권, 황병길, 전익근 등 약 40명이 참석하였지만, 각단체 통일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은 북간도에 들어온 이후 허근 등과 거의 의병들을 규합하였다. 신채호 등이 북경에서 발간하고 있던 『천고(天鼓)』는 "독립선언이 이미 선포되고 노(老)의병 대장 홍범도, 허근 제씨는 옛 부하들을 모집하였다. 노령으로부터 나와 북간도에 주둔하여 '의용단'이라고 칭하였다"라고 기록하여 놓았다.

한편 일제의 첩보 보고서에 의하면, 1920년 3월 하순 무렵 홍범도를 대장으로 하는 대한독립군은 4개 부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홍범도의 오랜 동지인 박운봉이 제2군 대장으로, 허근이 전위대장으로 부하 2백명과 함께 가담하고 있다. 여기에는 홍범도의 둘째 아들 홍용환(기명 홍태준)이 제4군 대장을 맡고 있었다.

대한독립군, 대한국민회, 대한군무도독부의 삼단연합과 봉오동전투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1920년 상반기 북간도의 대한국민회는 홍범도에게 대한독립군과 국민회 계열의 군대로 구성된 '북로정일제일사령부(北路征日第一軍司令部)'의 총지휘권을 맡겼다. 얼마 후 국민회는 북로군정서에 못지않은 무장력을 갖춘 최진동의 대한군무도독부와와의 통합에 나섰다. 국민회와 북로군정서(대한군정서)는 서로 다른 종교적·지역적 배경의 차이와 격심한 경쟁으로 통합이 어려웠다.

1920년 5월 19일 대한군무도독부(부장 최진동)와 대한국민회 군무위원회(위원장 안무, 부위원장 이원간)에 연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대한북로독군부(大韓北路督軍部)가 성립되었다. 그리하여 국민회측 간부는 주로 행정사무를 장악하고, 독군부는 오로지 군사행동을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민회측은 곧바로 북로정일제일사령관인 홍범도의 동의를 얻었다. 마침내 홍범도의 북로정일제일군, 군무도독부, 국민회 군무위원회간에 연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대한국민회, 북로정일제1사령부, 대한군무도독부 3개 단체간의 연합으로 대한북로독군부라고 하는 통합된 새로운 군사기관을 조직한 것이다. 북로독군부는 대한군정서(북로군정서) 총재 서일에 의하여 “삼단의 연합(三團聯合)”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다. 홍범도는 북간도 진출 이후 삼단연합과 봉오동 전투에 이르는 과정을 『일지』에서, “19년 10월 14일부터 20년 3월 초3일에 무단봉에 나가 사흘 유숙하고 있다가 행군하여 봉오골 최진동진과 연합하여 1920년 4월 초삼일(양력 5월 20일) 일병(일본군)과 접전하여”라고 회상했다.

도독부와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국민회는 홍범도와의 협의를 거쳐 대한북로독군부의 조직체계를 편성하였다. 국민회장 구춘선이 1920년 5월 28일자로 국민회 각지방회장에게 통보한 북로독군부의 조직체계와 주요간부는 다음과 같다.

대한북로독군부(부장 최진동, 부관 안무), 북로제일군 사령부(부장 홍범도, 부관 주건, 참모 이병채, 향안 안위동), 군무국(국장 이원), 군무과(과장 구자익), 회계과(과장 최종하), 감사과(과장 박시원), 통신과(과장 박 영), 치중과(과장 이상수), 향무과(과장 최서일), 피복과(과장 임병극).

이후 부관 박운봉, 참모 오주혁, 헌병대장 안선악, 제1중대장 강승범, 소대장 변이남, 제2중대장 강상모 소대장 현석준, 제3중대장 김호석, 소대장 이동춘, 송운진, 제4중대장 조권식, 소대장 김병률, 한중선, 중대장 김무진, 중대장

장응업, 소대장 김만순, 마하국, 최기풍 등 지휘장교들이 선임되었다. 제1, 제2, 제4 중대는 국민회 계열, 제3중대는 군무도독부 계열, 나머지 2개 중대는 정일사령관 홍범도 직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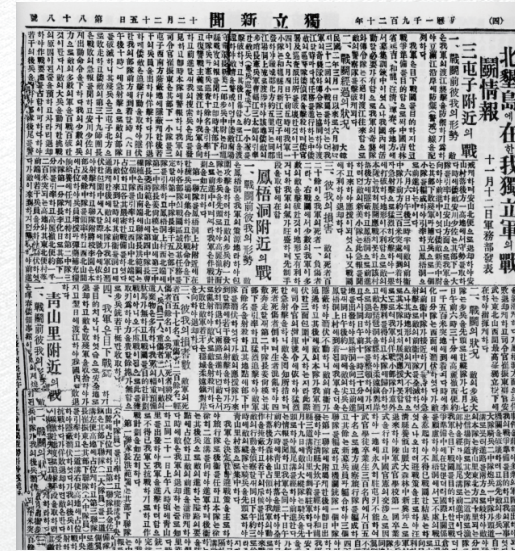
이상의 북로독군부의 지휘체계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사기관으로서 대한북로독군부 군대의 실질적인 전투 지휘권은 북로정일제1군사령부 사령관인 홍범도에게 부여되어 있었다. 홍범도는 북로정일제일군사령관으로서 대한북로독군부의 '외번(外藩)'격으로 그 지휘명령권이 독군부 부장이나 국민회 회장에게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위상을 가졌던 것이다. 국민회의 군사문제를 책임지고 있던 군무위원회의 안무는 최진동의 부관으로서 아직은 독립적인 군대를 지휘하고 있지 않았다. 후술하게 되는 바 안무가 독립적인 군대 지휘권을 갖게 되는 것은 국민회가 홍범도부대, 최진동부대와 결별하게 되는 8월 중순의 일이다. 이때까지 국민회는 홍범도의 정일제1사령부에 대한 군자금은 물론 요원들을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주지하다시피, 1920년 6월 일본군을 상대로 한 봉오동 전투에서의 승전은 바로 국민회,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의 3단연합이 주축이 되고, 북간도 군사단체 통합논의에 참여했고 국민회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신민단과 의군부의 일부 병력이 합세하여 이루어낸 쾌거였던 것이다. 북간도의 유력 군사단체인 북로군정서가 빠져 국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합에 기초한 승리였지만, 서북간도와 연해주의 독립군 전체를 통합하여 일사불란한 지휘체제로 일본과 본격적인 독립전쟁을 전개하겠다는 임시정부의 대망침이 부분적으로 거두 성과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봉오동 전투는 임시정부가 선포한 '독립전쟁의 원년'에 거둔 첫 승리라는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리하여 국민회 제1남지방회장 마용하는 지휘장들에게 보낸 호외(號外)에서 “독립전쟁의 개시”라고 환호했으며, 제2중부회장 강구우는 산하 지휘장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독립전쟁 제1차 대승리”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봉오동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한 쾌거는 절망에 빠져 있던 국내외 동포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봉오동전투를 지휘했던 사령관으로서 홍범도는 스스로 동포들의 성원에 보답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는 “고향산천을 떠나 타국의 영토를 떠돌아다니며 비참한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동포들로부터 금전과 곡식의 의

연을 받고 있는 것이 심대한데, 만일 우리가 독립의 뜻을 버리거나 세계 각국의 비웃음을 사는 일이 있다면,” “우리 동포들에게 무슨 면목이 있겠는가”고 말하여 농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었다.



▲ 독립신문 봉오동 전투 승전 기사(1920년 12월 25일 자 4면)

삼단연합의 붕괴

봉오동 승전 직후부터 삼단연합 단체들 사이에 균열의 조짐이 나타났다. 일제측 첩보 보고서에 따르면, 봉오동전투 직후 최진동은 홍범도가 봉오동전투 당시 “응전을 충실하게 하지 않고 급속 퇴각시킨 것이 독립군 의기를 떨어뜨린 주 원인이라”며 홍범도를 통렬하게 꾸짖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홍범도는 항의하지 않고, 부하들을 이끌고 다니며 각 지방에서 시위운동을 하여 독립의 기세를 회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고 최진동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홍범도는 휘하의 직속 부대를 이끌고 연길현(延吉縣) 명월구(明月溝, 중국명 廟溝)로 주둔지를 옮겼다. 사실상 최진동을 부장으로 하는 북로독군부와 별도의 독립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북간도 지역의 군사단체들은 국민회를 중심으로 1920년 3월 이래 7월초까지 북간도 항일무장단체들을 통합하기 위한 통합회의를 세 차례 이상 개최하였지만 성공에 이르지 못했다. 최후로 8월 7일, 8일 북간도독립군 단체들의 통일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단체의 수령급 인사들이 일량구(一兩溝)에서 연합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연합대회에는 군정서를 제외한 각단체 대표들이

회합했지만, 홍범도와 최진동간에 의견충돌이 일어나 군사통일에 실패하였다. 그리하여 홍범도는 휘하 부하들을 이끌고 일량구를 떠나 명월구(明月溝)를 경유하여 무산(茂山) 간도 방면으로 떠났다.

삼단연합의 두 축인 국민회와 대한군무도독부 역시 갈라섰다. 일본첩보보고서에서는 대한군무도독부와 대한북로독군부의 분열을 최진동이 자신의 무장력을 대한국민회측에 빼앗긴 데서 비롯되었다고 파악하였다. 앞에 소개한바 북로군정서 총재 서일 명의의 「성포문(聲佈文)」(1920년 9월 30일 자)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국민회가 “도독부를 유설(誘說)하여 처음에는 양쪽의 명의를 구비하여 신(新)명으로 고치기로 하고는 자회(自會=국민회)는 그대로 두고 [산하의] 군무연구회의 명목만 해소하여 은연하게 북로독군부를 국민회의 감독하에 두고 심복 군인으로 하여금 독군부의 총 수백 정을 갖고 중도에 자회(自會)로 도망게 하여 독군부와 개전한 일까지 있었다”며 국민회측을 비난했다.

국민회 계열 군대의 (대한)북로독군부 이탈은 일제 첩보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북로독군부장 최진동의 압박과 탄압을 견디지 못하여 북로독군부 내의 국민회 계열 강상모, 강승범, 조권식 등 중대장이 지휘하는 3개 중대가 명월구로 가서 홍범도 진영에 합류했다는 것이다.

국민회가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던 중(1920년 8월 9~12일) 8월 10일 오후 5시경 대한북로독군부에 소속되었던 국민회 계열의 제3, 제4 중대가 독립을 선언하고



▲ 봉오동전투의 두 주역 홍범도 최진동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극동민족대회) 1921.21~22

탈퇴하였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마침내 1920년 5월 하순 이후 봉오동전투를 비롯한 국민회와 대한군무도독부의 협력관계가 사실상 단절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국민회는 독자적인 군사기관으로 대한국민군사령부를 조직하였다. (사령장관 안무, 부관 최익룡 중대장 조권식, 임병국, 향관 김석두, 허동규). 국민회의 대한국민군사령부 편성은 임시 정부에서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국민군 편성 정책에 일치하는 것으로 임시정부의 노선을 충실히 따랐던 국민회로서는 당연한 결정이었다.

북로군정서가 총재 서익(徐一)의 명의로 발표한 '성포문(馨布文)(1920년 9월 30일자)에서는 홍범도가 국민회로부터 멀어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민회측에서 홍범도에게 경쟁 세력인 북로군정서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렸지만 홍범도가 이에 응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이다. 즉, 홍범도는 “신의소박(信義素朴)한 인사로서 해회[該會=국민회]의 전후용심(前後用心)의 패악(悞惡)을 먼저 규파(窺破)하고 즉시 자기의 부하를 영도하여 타처(他處)로 가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홍범도가 국민회로부터 멀어지게 된 계기는 홍범도에게 북로군정서를 공격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 국민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국민회 계열 군대의 북로독군부 이탈을 계기로 1920년 8월 10일에 단행된 대한국민군사령부의 창설은 홍범도 부대와 국민회간의 최종적인 결별을 의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1920년대 내내 홍범도는 북간도로 들어온 이후부터 국민회의 인적·물적 지원을 받아 북로정일제1군 사령관으로서 사실상 국민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북로독군부 부장 최진동의 압박과 국민회 공격이 심해지면서 국민회 계열의 병력이 홍범도진영으로 옮겨올 정도였다. 홍범도는 1920년 6월 이후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휘의 지도와 국민회의 협조로 추진된 명월구 무관학교 설립계획에도 적극 참여했다.

그러나 국민회가 대한국민군사령부라는 독립적인 군대를 창립한 8월 중순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홍범도의 북로정일제일군과 안무가 지휘하는 대한국민군은 별도의 지휘 체계하에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결국 삼단연합은 연합 이전의 상태 즉,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안무의 국민회 대한국민군으로 분열되었다. 봉오동 전투 승리를 가져왔던 삼단연합이

무너진 상태에서 일본군 대병력의 ‘포위·토벌전’, 즉 간도 침공(간도사변)을 맞게 된 것이다.

서로(西路), 북로(北路) 두 군정서와의 새로운 삼단연합 추진

중국군의 독립군 ‘토벌’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1920년 8월 하순 이후 북간도 지역 독립군의 삼림지대로의 대이동이 시작되었다. 연길현 명월구에 자리잡고 있던 홍범도의 정일제1군이 먼저 길림성 안도현(安圖縣) 방면의 백두산록으로 이동을 시작하였다. 안무의 대한국민군, 의민단, 신민단, 의민단 등도 뒤따랐다. 대한군정서(북로군정서)는 사관연성소 생도들의 졸업식 때문에 곧바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9월 9일에 졸업식을 마친 후에 이동하였다.

훈춘사건(1차)으로 일본군의 침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홍범도는 9월 20일경 이미 협력관계를 맺고 있었던 두 군정서(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 5월 말 두 군정서는 국민회와 도독부의 연합에 대하여 연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상태임)와 새로운 삼단연합에 합의하였다. 즉, 홍범도와 서로군정서측은 북로군정서에 대표자를 보내어 세 독립군 단체가 안도현에 집결한 후 세 개의 사령부로 나누어 두되 하나의 총괄기관을 설치하여 통솔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군의 간도침공으로 인하여 이 새로운 삼단연합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세 단체간의 삼단연합은 청산리전투 후 연해주 이만으로 넘어가기 전 북만주 호림(虎林) 도목구(到木溝)에서 비로소 실현된다.

홍범도 군대는 9월 상순까지 연길현 의란구(依蘭溝) 서북단에 주둔하고 있었다. 중국군의 토벌이 임박하자 쫓겨 홍범도는 휘하 병력 약 3백명을 이끌고 안도현의 내도산(內島山)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하고 의란구를 떠났다. 당시 홍범도는 부하들에게 “이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일본군대의 출동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일본군대와 교전하는 것을 꺼리지는 않지만 이 지방에서 전사하는 것은 개죽음과 같다. 그렇다면 일시 백두산지방으로 회피하여 결빙의 계절을 기다려 일보라도 국내로 매진하여 의미있는 희생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일본군의 공격에 대비 하였다.

일본군의 침공이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지는 바람에 홍범도 부대는 안도현 대신에 화룡현(和龍縣) 2도구(二道溝), 3도구(三道溝) 일대로 이동하였다. 홍범도는 화룡현의 2도구,

3도구 각지에 흩어져 있는 부대를 무산(茂山) 간도와 광포(廣浦) 방면에 집결시키고 북로정일제1사령관으로서 ‘선지 침습의 최선봉’임을 다짐하였다고 한다. 당시 홍범도는 “일본군대의 출동에 의하여 독립군은 이제야 일중(日中) 양국 군대와 경찰 때문에 압박을 받고 심하게 행동을 제지되고 있다. 고로 이때 일거에 국내를 침습하든가 또는 간도내에서 일본군과 교전하든가 하나를 택해야 할 것이다”라며 일본군과의 결전 의지를 다졌다고 한다.

일본군의 공격과 청산리전투

청산리전투를 앞둔 시점에서 북간도 독립군단들의 이동상황을 보면, 최진동의 군무도독부와 포수대 등은 앞서 북방의 나자구 방면으로 이동하였지만, 대한독립군, 신민단, 한민회군, 북로군정서 등 다른 독립군 부대들은 화룡현 2도구와 3도구로 집결하였다. 일본 첩보보고서에는 청산리전투 이전에 홍범도 부대(250명)와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군대 간에는 “격의없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 공동 동작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고 파악하였다. 그러나 청산리 전투에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는 연합작전을 벌이지 못하고 각자 일본군과 각개 전투를 벌이게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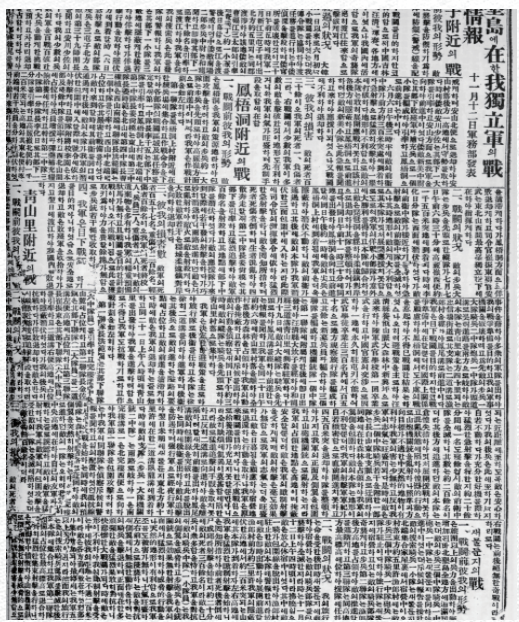
일본 정부는 봉오동전투에서의 패배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특히 일제는 독립군 활동의 배후에 서북간도 동포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처해 있던 한인 농민들은 군자금을 비롯하여 식량과 의복을 제공하였으며 적의 동향에 대한 정보 전달 등 헌신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일제는 북간도 지역의 독립군을 섬멸하고 독립군 활동을 가능케 하는 북간도 한인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파괴에 나섰다. 일본정부는 중국의 만주 군벌과 합의하여 작전지역을 정하고(연길, 화룡, 왕청, 훈춘, 동녕현 일부 등 5개 현), 이 지역의 독립군 주력을 섬멸하기 위하여 한반도 조선군(19사단 주력, 20사단에서 일부 지원부대), 관동군, 시베리아 침략군(11, 13사단, 북만주파견대)으로 ‘독립군토벌대’를 편성하고 북간도 지역의 독립군을 동서남북에서 포위·섬멸코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러시아 원동지역을 침략했다가 일본 본토로 귀환하는 4천 명의 군대(14사단 28여단)로 하여금, 북간도 지역을 시위 행군케 하여 위력을 과시하고 여차하면 토벌에 가담토록 하였다.

동원된 총병력은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1만 5천 명에서 1만 8천 명 정도로 추정된다. 일본 침략군은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북간도 각지의 주요한 거점들을 점령하였다. 일본군은 중국군과의 타협에 따라 백두산 산울 지역인 화룡현의 2도구, 3도구 일대로 이동한 독립군의 주력, 즉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 군대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군대를 섬멸하기만 하면 독립군 전체를 제어할 수 있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일본군은 이 두 군대를 집중적으로 포위하고 퇴로를 차단하며 공격하였다. 약 1주일에 걸쳐 백운평, 완루구, 천수평, 어랑촌, 천보산, 고동하 등지에서 독립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한 전투가 갖는 역사적 의미는 ‘독립군 섬멸’이라는 일본군의 침공 목표를 좌절시킨데 있다. 김좌진과 홍범도는 청산리전투 2개월 후인 1920년 12월 중순경 발표한 공동명의로 ‘해산한 아군사(我軍士)에게 고(告)한다」에서 일본군의 막강한 병력 앞에서 ‘일시의 변법’으로 무장해제를 하고 일본군의 포위망을 벗어났으며 청산리전투를 평가했다.

일제 당국은 홍범도 부대가 청산리 전투 당시 “이도구, 어랑촌, 봉밀구에서 일본군에게 완강히 저항한 주력부대”였다고 평가했다. 『천고(天鼓)』는 ‘한당의 활동’이라는 제목하에 한성에서 온 보고라고 하면서, “한인독립당 수령 홍범도씨는 계락을 꾸미는데 강직하고 굽히지 아니하며, 사졸과 더불어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하였다”고 썼다. 북간도에서의 홍범도의 활동이 국내에까지 잘 알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청산리전투 승전 기사(독립신문 1920년 12월 25일자 4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산리전투는 홍범도 부대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홍범도 군대는 여러 전투를 끝낸 후 우두양차(吾道陽岔)에서 일본군과 홍후즈의 공격으로 “우동(봉)앞에 불쑥이던 군사는 씨도 없이 다 죽고 그 나머지는 일패 도주하니 다사 갱머여망이 되었다.”고 회상하였다. 청산리 전투 직전에 520명이었던 홍범도의 병력은 우두양창에서의 대패로 전사하고 흩어지는 바람에 4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들은 안도현 쪽으로 가다가 “제1중대장 리천호를 만나 합이 200명으로 안도현을 행하여” 안도현 삼인방(三人方)으로 들어갔다.

청산리대첩의 양대 주역인 북로군정서 사령관 김좌진과 북로정일제1군 사령관 홍범도는 1920년 12월 준중경 공동명의로 발표한「해산한 아군사(我軍士)에게 고(告)한다」에서 일본군의 막강한 병력 앞에서 ‘일시의 변법’으로 무장해제를 하고 일본군의 포위망을 벗어났지만, 다시 집결하여 노농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기할 것을 촉구 하였던 것이다. 김좌진과 홍범도의 공동명의로 발표된 「해산한 아군사에게 고한다」에서 밝힌바, 러시아 “노농정부와 약정하여 군수충분(軍需充分)하게 또 무기 탄약은 제한 없이 무료로 공급받을 것”이라는 점은 단순한 선전구호가 아니라 청산리전투를 치른 독립군단 지도자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서로군정서의 교성대를 이끌고 홍범도 부대와 함께 대한 의용군 창설에 참여한 김승빈(金承彬)은 당시 독립군들은 봉오동과 청산리의 두 전투에서 그동안 휴대했던 탄약을 거의 사진(射盡)하고 이를 보충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청산리대첩비 (독립기념관 김도형 선생 제공)

군정서군대의 장교로서 청산리대첩에 참전하였던 강근(姜瑾)은 “첫 전투 할 때까지는 적군이 우리만 추격하는 병력뿐으로 알았으나, 남북 만주 일대에 적군의 병력이 사단 힘을 가지고 토벌 작전하는 것을 알게 되자, 중과부적의 형세를 살피고 하는 수 없이 아군은 쏘련으로 이동하기로 된 것”이라고 하였다. 절대 우세의 막강한 일본군의 ‘토벌전’에 맞서 싸우기에는 만주독립군의 무장력은 이미 크게 약화되어 있었고, 봉오동, 청산리 두 큰 전투를 치루면서 화력을 소진한 상태였고 일반 병사들도 크게 지쳐 있었던 것이다.

(다음 회에 계속)



▲ 독립신문 봉오동 전투 승전 기사(1920년 12월 25일 자 4면)

고려극장 설립 90주년 및 고려일보 창간 100주년 기념전시회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위대한 유산, 고려극장 설립 90주년 및 고려일보 창간 100주년 기념 전시 - 고려극장 수위 홍범도, 인사동에 오다’ 전시회가 1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인사동 구구갤러리에서 열렸다. 옮겨올 들어 가장 추운 주간이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일제에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도 그리고 CIS로 강제이주 당한 후에도 우리말을 끝까지 지키며 신문을 100년간 발행하고 각종 공연과 연극으로 우리 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긍지를 지켜온 고려인들의 역사의 길을 함께 걸었다. 이번 전시회를 위해서 유준 작가님이 홍범도장군 수목화를 그려주셨고, 크즐오르다 묘역에 있는 장군님 홍상을 1/2로 축소해 3D로 프린팅으로 제작하여 전시하였다.



고려극장 설립 90주년 및 고려일보 창간 100주년 기념전시회

자원봉사 후기 - 기억한다는 것은 의지를 갖는 것



조 하연 광운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정보융합학부 학생

대한민국에서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 조건은 '평화로움'이다. 오늘도 시작된 우리의 고요한 아침을 위해 지난 백 년 동안 자신의 모든 생을 바친 분들을 향한 존경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초겨울, 평소 취미로 하는 국궁 동아리를 통해 알게 된 역사학도 분을 통해 우연히 흥분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위대한 유산'을 주제로 고려극장 설립 90주년과 고려일보 창간 100주년 기념전시회를 연다는 소식을 건너 전해 들었다. 봉사자가 부족하여 안내해 줄 수 있는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에 전통을 잇는 운동을 하는 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좋은 뜻에 선뜻 자원봉사를 지원했다. 시작할 때 부터 평소 도슨트 자원봉사 경력을 살려보자고 자신하며, 그렇게 인사동 한가운데에서 전시 안내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다.

이 전시 안내 봉사는 시작부터 기존 전시와는 다른 굉장히 이색적인 느낌을 주었다. 그건 아마 전통과 현대가 가장 맞닿아 있는 '인사동'이라는 공간에서, 시공간을 초월해 우리 조상들의 발자취를 전시해 놓았기 때문 아닐까. 많은 역사가 전시되어 있는 이 공간에서는 마치 우리가 조상님들과 연결되어 있는 우연히 말은 제례의 향이 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전시가 시작하기 전에 전시 안내를 위해 작품들과 책자를 따라가며 보존과 재현이 잘 된 고려인들의 역사, 노력, 그리고

희망의 발자취에 대해 찬찬히 살펴볼 수 있었다. 레닌의 소련은 중앙집권제 안에서 우리나라 독립 운동가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후 정세가 바뀌어 스탈린의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제의 시작과 함께, 1937년 스탈린의 소련은 연해주에서 살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를 포함한 한민족들을 강제로 추방하여 이주시켰다.

수많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살던 하루를 돌연 빼앗기고, 중앙아시아의 이름 모르는 황무지로 경황없이 기차에 실려 끌려갔다. 창문이 없는 화물칸, 가축용 운송 칸, 열차에 실려 이동하는 열악한 환경 탓에 이송 도중에 숨진 이들도 많이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이들이 도착한 곳에 척박한 땅만 있을 뿐, 희망의 낙원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다. 농사를 시작했고, 신문을 만들었고, 우리말 교육을 멈추지 않았고, 극장을 세웠고, 대학까지 설립했다.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민족을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조국을 위해.

그렇게 이어진 우리나라 한민족의 정신이 드넓은 아시아 대륙을 건너 100년이 지나 이제는 부강해진 우리나라의 자랑으로 남아있다. 떠나온 곳을 기억해 내려 노력하는 것이 분명 다시 돌아갈 조국을 향한 의지가 되지 않았을까?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자주 대한 독립을 위해 모든 생을 바치신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흥분도 장군도 스탈린에 의해 강제 이주를 떠나 카자흐스탄 땅으로 쫓겨났다. 흥분도 장군은

말년까지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의 수위로 일하시며 언제나 고려인의 정신적 지주로 고려인들과 애환을 함께 나누셨다. 안타깝게도 광복 2년 전인 1943년에 돌아가신 탓에 유해가 카자흐스탄에 모셔졌지만, 몇 년의 공조 끝에, 2년 전 광복절에 '흥분도 장군 유해 봉환 천명'으로 비로소 순국하신 지 78년이 지나서 본인이 평생 지키고자 한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으셨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그 날을, 다른 고려인들도 차가운 땅속에서 뜨겁게 염원했을 것이다.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어 다다른 막다른 땅에서 수많은 눈물과 땀의 노력으로 한민족의 입지가 푸르게 피어 자리 잡아 지금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다. 고려인들의 슬픈 흥터가 이번 전시에서 훈장처럼 붙여져 있었다.

고려인들은 시간이 흘러 이제 4, 5세가 되었다. 전시하는 동안, 전시 작품 중 고려신문 초판본과 고려인 후손에 대한 인터뷰 다규 앞에 어느 한 분이 우두커니 오래 서 계시길래 다가가 혹시 설명이 필요하신지 여쭙보니 그녀는 서툰 한국어로 자신의 사연을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이야기 하기 시작했다.

"저는 고려인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집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강제로 아주 먼 곳으로 이주를 당하셨어요. 할머니가 생생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할머니와 어머니는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평생을 겁을 먹으며 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가족을 지키셨어요. 이번에 고려인과 관련된 전시가 있다고 해서 인사동까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여기서 다시 듣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하셨어요."

그 후로도 우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며 나는 먹먹함을 느꼈다. '우리나라의 강제 이주 역사는 과거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남았있는 현재 우리 모든 후손의 유산이기도 하구나.' 나는 그녀의 서툰 말솜씨에도 그녀와 그녀의 가문이 고려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그녀가 울 때 나도 같이 울 수밖에 없었다.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한평생 내가 살아온 땅, 그곳에서 함께한 사람들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쫓겨난 사람들.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기차에 오른 채 수 많은 시간을 달려 도착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당장 오늘부터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과연 그들은 100년 후에도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 고국과 한없이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에서도 고려인들은 어디에서나 특유의 성실함으로 우리 민족이 살아온 방식과 문화를 유지하고 서로 연대하여 우리 민족의 미래를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머나먼 땅에서도 위대해졌다. 이 노력이 발굴된 이후, 나는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연대와 통합의 미래 정신이 되어줄 지표라 믿는다.

이 전시를 통해 과거 강제 이주를 당했던 고려인을 조명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그 험난한 세상에서도 오늘의 무탈함을 목표로 평생의 정의를 추구하신 독립운동가분들을 향한 존경이 밀려왔다. 이 전시는 아마 수 많은 무명의 고려인들과 그 선봉장에 있던 어느 나이 든 고려극장 수위의 사연과 마음을 전하려 앞으로도 여러 곳에서 계속 될 것이다.

전시를 안내하는 동안 스스로 뿌듯해 저서 오는 모든 분께 전시를 조금이나마 더 나누고 싶은 열정이 샘솟았다. 이번 전시를 통해 가장 인상 깊은 관객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분들이었다.

'그냥 추위를 피하러 구경하러 잠시 들어왔는데, 만약 이 설명을 듣지 못하고 나갔으면 너무 아쉬웠겠네요.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이걸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해야겠네요'

몇 권을 빼곡히 다 채운 방명록에서 기억하려는 의지를 보았다. 기억하는 것은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기억하고자 하는 것의 진실은 잊히지 않는 법이니 말이다. 이번 봉사가 다시 한번 의미있는 시간임을 알려준 어느 평화로운 겨울, 뜨거운 날이었다.

[시민 기고]

※ 본 수필은 2023년 10월 홍범도 장군 서거 80주년을 맞아 ‘굿모닝 충청’에서 주최한 “홍범도 장군 바로 알기 전국 백일장 공모전”에서 수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홍범도 장군과 장(壯)한 군사(軍士)들

이 민 호

역사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2년 전 멀고 먼 카자흐스탄에서 국내로 모시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식을 뉴스로 보았고, 최근에 홍범도 장군 홍상 이전 관련 여러 매체와 시민운동에서 역사에 관한 사실 왜곡을 질타하는 소식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 자료들(민족의 장군 홍범도/이동순/한길사/2023, 범도1, 2/방현석/문학동네/2023, 빨치산 대장 홍범도 평전/김삼웅/현암사/2013)을 읽으며 그동안 어렵곤했던 장군과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자세히 알게 되었다.

나라마다 오랜 역사에서 고난을 거치지 않을 때가 없었겠지만, 필자들의 수십 년 동안 현지 답사와 고증, 고심의 필력으로 펼쳐지는 생생한 장면들에서, 나라 잃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피땀 흘리고 목숨마져 바친 선열들과 장군의 일대기에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진실과 이념을 진영논리로 왜곡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도 알게 되었다.

극심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몸과 마음을 바쳐가며 대한의 독립과 주권을 위해 홍범도 장군과 또 함께했던 수많은 장(壯)한 군사(軍士)들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도...

이 일대기를 읽으며 그동안 역사에 대한 무지, 무관심에 부끄럽기도 하지만, 배우고 느끼고 나갈 바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감상을 쓰고자 한다.

홍범도 장군은 무엇보다 열린 마음으로 열심히 배웠다고 본다.

비록 비천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젓동냥으로 자랐지만, 바뀌는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불의에 항거하여 잘못된 점을 고쳐나간 인물이었다.

군대에 지원하여 나팔수 생활을 하고 제지공장에서 3년을 보냈으며 금강산 신계사에서 생활하고 산포수로서도 활동하며 부조리, 부패의 실상을 경험하고 지휘관의 역할을 하나하나 배워나갔다.

삶의 경험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전투에서 허를 지르는 심리작전과 자연 환경을 이용한 사전준비, 유인, 매복, 섬멸 작전들이 승리로 빛을 발하였다

장군은 행동으로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왜구를 처단할 때, 홀로 맞서나가기도 하고 직접 총으로 저격하며 실력으로 보여주고 단독부대는 물론 연합부대를 지휘하며 수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장군은 현장에서 늘 함께하는 삶이었다.

전투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농장과 학교 현장에서 함께

참여하고 고심하며 모범을 보이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

73세의 고령에도 독립전쟁의 적인 일본과 동맹을 맺은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도 참전 의지로 총숨씨를 보이면서.

적재적소에 인재를 활용하며 상대를 인정하였던 지휘관 홍범도 장군.

여자는 훈련대장으로 안된다는 주위의 고정관념에도 여포수 진포를 임명하고, 이름없이 음지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발군들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도감, 도원의 직책을 주어 자부심을 갖게 하고 승리에 큰 역할을 하게 하였다.

홍범도 장군은 꿈을 심어주었다.

사람마다 각자의 자질과 역할이 있는 바, 이를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였다. 특히 공부로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를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라는 ‘공부 전투’라는 말로 사기를 북돋우며 장래 희망을 갖게 하였다.

한편으로는 아들들에게 베풀지 못한 배움의 길을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도 절절하게 갖고 있으면서.

장군은 끊임없이 화해와 조정자 역할을 감당하였다고 본다.

정파와 호불호의 이해관계, 파벌 다툼으로 분열될 때 화해시키고, 또한 조직과 단합을 위해서라면 직책과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상대를 인정하고 성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고뇌하는 지휘관이었다.

모진 고문 속에서도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한 아내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했다는 회한과 자책감..

왜구들에 당하는 어머니의 고초를 알기에 어머니를 대신하여 장군을 회유하는 편지를 갖고 온 큰 아들을 꾸짖으며 권총을 쏘아 귀를 상하게 했던 장군의 심정..

둘째 아들이 따뜻한 보살핌도 없이 병마로 숨을 거둔 후, 못 이룬 공부의 꿈을 안타까워하는 부모로서의 회한.

이 모든 것에 부모와 남편의 위치를 뒤로하고 지휘관으로 홀로 감당해야 했던 홍범도 장군..

또 배고픔을 안고 추위에 죽어간 대원들과 동포들의 슬픔으로 고뇌하는 장면들이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독립전쟁의 역사에서 수 많은 장한 군사들, 선열들이 희생이 있었다.

길고 긴 이동과 전투 과정에서 춥고 배고픈 생활을 견디며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며 죽어간 동포들..

봉오동 대첩, 청산리 대첩에서 대패한 왜구가 분풀이로 자행한 삼광작전(약탈, 살륙, 소각)으로 잔인하게 학살된 5천여의 수 많은 동포들-갓난 아기, 2~3살 어린이, 임신부, 노약자들의 갑신참변 희생이 얼마나 슬프고 가슴 먹먹했던가..

봉오동 전투에 앞서 맨발로 피 흘려가며 “일본 군대가 와요!”라며 왜구들 도착을 알린 아낙네. 참으로 장한 여인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동한 장군이 ‘바로 이런 민중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바쳐 싸운다’는 가슴 깊은 울림..

한 명의 적이라도 더 처단해야 하기에 총 쏘느라 밥 먹을 겨를이 없는 대원들을 위해 손수 밥을 날라 떠먹이던 눈물겨운 아낙네들..

전투에 맞는 역량을 키워가며 왜구들과 맞싸 싸우며, ‘줄지마라 줄면 죽는다’는 말을 되새기며 장군과 함께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을 참으며 간도와 러시아의 사선을 넘나들고, 하루아침에 강제로 이역만리 중앙아시아로 흩어져야 했던 처절한 선열들의 희생..

또한, 역사를 기록으로 만들며 함께한 장한 군사들도 있었다.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연극으로 공연하고 글로 남긴 선열들의 역할도 컸다.

이제 홍범도 장군과 장한 군사들이 이룩한 위대한 독립 전쟁의 역사를 바탕으로 지금의 역사,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먼저, 공부 전투다.

시민으로서 역사를 바로 알고 함께 참여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보고 읽고 판단하며 공유하고 연대하여 민족의 바른 역사를 지켜나가야 한다.

자질을 키우고 각자 맡은 역할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 여자이지만 훈련대장으로 임명하였을 때, 홍범도 장군의 의도를 깊이 이해하고 사격시험에서 사발크기 목표물은 물론 종재기까지 명중시킨 진포의 용기와 실력처럼..

나라가 기우는 것은 어느 때나 부정, 부패, 매관매석 등 비리가 커져갈 때였으니 본분에 맞는 마음공부 또한 중요하다. 지도층이 얼마나 무력하고 부패했는지 장군과 대원들의

울분, 응징의 장면들과 횡포와 착취를 못 이겨 고향을 등지고 이국만리로 떠나야 했던 동포들의 고달픈 모습이 떠오른다.

역사 전투도 필요하다.

독립전쟁과 독립운동 역사발굴,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운 역사들을 찾아내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독립을 위해 크고 작은 재산을 내놓고, 자결로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국정혁파를 주장한 지사들, 부녀자들의 헌신과 노력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일본군의 삼광작전에 참혹하게 죽어간 선열들, 관동대지진 때 잔인하게 학살된 수 많은 동포들, 더 나아가 난징대학살 등 일본의 만행에 희생된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옛 일본 에도막부 시대 외교관이자 선각자인 아메노모리 호슈가 '싸우지 말고, 속이지 않고, 성의를 가지고 선린관계를 이루자'고 주장하였는데, 이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일본이 성숙한 선진국가로 가려면, 주변국에서 뭐라 하기 전에 일본 스스로 침략과 학살에 대한 진정한 참회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

평화를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한다.

홍범도 장군과 선열들이 독립운동을 한 이유는 대한제국, 대한민국이 서로 화해하고 평화로운 통일 조국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남북한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펼쳐나가야 한다.

끝으로, '홀로 있고 홀로 가는 자, 홀로 가게 하라'는 신문답처럼, 홍범도 장군과 장한 군사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홀로 외롭고 고된 길을 갔다.

홍범도 장군은 민족과 대의를 위해 차별, 억압, 침략에 맞서 한결같이 일생을 바쳤다.

장군과 장한 군사들, 선열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독립운동 역사를 통해, 바르고 옳은 것을 본받고, 바른 역사와 평화의 미래를 위해 '함께 있고, 함께 가야 할'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국내 고려인 학생 자녀 역사 교육·탐사

지난 4월 23년 1차 교육·탐사에 이어 11월 11일에는 2차 교육·탐사를 실시했다. 이번에도 대한고려인협회와 인천대 동북아 국제통상학부의 협조로 약 30명의 국내 거주 고려인 학생들이 서울타워 및 경복궁 등 홍범도장군이 일제로부터 지켜낸 우리나라의 문화를 탐사하며 우리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키웠다. 본 행사에는 이명우 이사, 홍순계 이사, 채예진 이사, 성원용 인천대 교수가 함께 하였다.



한국 여행의 아름다움: 역사 속 영웅들과 새로운 인연, 그리고 즐거운 추억

김 콘 스 탄 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

지난 주에는 대한고려인협회와 함께 서울을 여행했는데,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요. 하루에도 많은 재미있는 곳을 방문했고, 이 여행을 통해 많은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졌어요. 이 여행을 즐긴 이유는 정말 많아요.

먼저, 이회영 기념관을 방문했어요. 한국의 역사와 영웅들에 대해 더 알게 되어서 흥미로웠어요. 기념관 자체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역사를 설명해주신 분도 정말 친절하셨고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기념관에 있는 전시품들을 보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특히 당시에 쓰였던 총들을 보고, 조상들이 어떻게 일본 침략자들에 맞서서 자신들을 방어했는지 배웠어요.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 조상들에 대해 알고 자랑스러웠어요. 기념관을 다 본 후에는 남산타워로 갔어요. 산에서 보는 경치가 정말 멋있었고, 함께 많은 사진도 찍었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고대의 경비들처럼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옷들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남산에서 내려온 후 돈까스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둘째, 우리는 홍범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홍범도의 용기와 헌신은 나에게 깊은 영감을 안겨줬어요. 그의 이야기는 어떠한 어려움과 도전이든지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끈질긴 힘을 나에게 보여줬어요. 홍범도는 자신의 미래와 국가의 자유를 위해 희생적인 행동을 선택했고,

그 결정의 강인함과 희생정신은 나에게 지속적으로 용기를 심어주고 있어요. 그의 이야기는 현실 세계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곳곳하게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에 대한 내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켰어요. 홍범도의 영웅적인 행적은 나에게 과거의 영웅들이 가진 불굴의 의지와 헌신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고, 나 또한 자신의 꿈을 추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키워줬어요.

마지막으로, 이 여행을 정말 즐긴 이유는 함께한 사람들 덕분이에요. 처음에는 여행 전에 알고 있던 친구들과만 어울릴 줄 알았는데, 많은 새로운 사람들과 친구들을 만났

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운이었어요. 인천대학교의 학생들도 정말 친절하고, 우리를 안내해준 여성분들도 정말 친절하셨어요. 모두가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실제 여행보다 더 즐거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래요.

결론적으로, 이 여행을 정말 즐겼어요. 함께한 모든 시간이 재미있었어요. 관광지를 보고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정말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요. 대한고려인협회가 앞으로도 이런 여행을 더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그러면 저도 꼭 참여할 거예요.



국내 고려인 학생 자녀 역사 교육·탐사

이회영 선생님과 홍범도 장군님에 대해 배우며...

설유환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학생

제가 다니는 동북아국제통상학부는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네 나라 중 한 나라를 정해 그 나라의 언어와 지역학, 경제를 배우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저는 러시아를 선택하여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었는데 저희 러시아어 교수님인 정영순 교수님의 소개로 이 행사를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역사 기행에서는 우당기념과 견학을 시작으로 남산 케이볼카를 타고 남산을 구경하고, 남산돈까스를 점심으로 먹고 경복궁 견학을 하고 인사동거리구경을 구경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당기념관에서는 이회영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기념관 이름이 우당인 이유는 이회영 선생님의 호가 우당이기 때문입니다. 이회영 선생님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 전재산을 이용해서 신흥무관학교를 지으셨다는 것 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회영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하신 다른 행동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전 재산을 쓰셨다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존경하고 있었는데 그것 말고도 더 많은 행동을 하셨다는걸 알고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남산에 갔는데 저는 남산에 처음 가봐서 남산을 구경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남산에서 보는 서울의 풍경은 매우 아름다웠고 다음에 애인이 생긴다면 꼭 같이 오고 싶었습니다. 점심으로 먹은 돈까스도 맛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경복궁에 가서 구경을 하였는데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가본 것은 처음이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경복궁을 풍경 삼아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니 사진이 잘 찍혀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은 인사동이었습니다. 인사동은 자주 가봐서 새로운 것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본 전통 사물놀이 공연이 매우 신나고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고려인 친구들과 러시아어로 대화를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저는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지만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고려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러시아어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좋았습니다. 또한 고려인 친구들이 굉장히 친근하고 잘 챙겨주고 잘 알려주어서 러시아어로 대화하기 편했습니다.

이 역사기행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이 행사를 통해 홍범도 장군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먼 타지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고려인 친구들과 우리 문화와 역사를 배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학교에서 봉오동 전투에 대해 배우면서 홍범도 장군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오동 전투 이후 홍범도 장군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영웅이신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배울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고려인 친구들과 우리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1

추석 성묘



10월 2일, 홍재구 이사, 한동건 사무총장, 오광영 이사와 대전지역모임 회원들이 추석을 맞이하여 국립대전현충원의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찾아 성묘를 하였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2

고려인 문화 교육·전수 사업



10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서 고려가무단 단원들을 대상으로 전통 문화를 교육·전수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본 사업 교육은 특별히 파견된 이경철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가 맡았다. 이경철 이사는 송파산대놀이와 송파다리밟기 전수자이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3

SNS 재개설

SNS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계정을 단일화하여 재개설하였다.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61551775126218&locale=ko_KR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hongbumdo0607/>
- 이메일: bumdo0607@gmail.com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Nbeh-iNa6kGrHQ4giahBQ>

홈페이지도 새로 단장할 계획이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4

송년회



12월 29일, 약 30명의 이사와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말 바빴던 2023년 한 해 동안의 기념사업회 활동 사항을 되짚어 보고, 2024년에는 홍범도 장군의 정신을 기리고 널리 알리는 활동에 더욱더 열심히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원섭 부이사장과 반병률 홍범도아카데미 원장에게는 기념사업회 활동 및 학술회의를 통한 자료 축적으로 홍상 이전 저지 운동에 크게 기여한 공으로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이번 송년회 비용은 박화양 이사(2024년 신임 이사)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회원 동정



우원식 이사장

- 우원식 이사장은 지난 10월 25일 순국 80주기 추모식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3주년 기념식에 참여해 독립운동단체 관계자와 많은 시민들, 민병덕 의원, 양정숙 의원, 박민식 보훈부 장관, 배우 조진웅 님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홍보대사)과 함께했다.
- 이외에 10월에는 국회의원 181인이 참여한 홍상 존치촉구 국회 결의안에 대표발의자로 참여했으며 11월에는 순국선열의날을 맞아 독립유공자단체들과 함께 홍상 이전시도에 대한 기자회견 및 민주당 독립영웅역사왜곡저지특위와 함께 육군사관학교에서 홍상 완전존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11월에는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카자흐스탄도 방문했다. '홍범도장군 기념공원 및 거리' 준공식에 참석하여 현지 고려인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크즐로르다대학에서는 프로젝트 순환과 지원에 대한 감사로 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에게 명예교수 수여식을 열어 명예교수직을 수여하고 우원식 이사장의 특강을 열었다.



홍성종 이사

11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조상의 얼을 추구하고 종친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남양 홍씨 추계추모제에 참석하였다.

남양홍씨 남양군파 대종중회 회장인 홍성종 이사는 홍범도 장군 묘역이 있었고 현재는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이 있는 카자흐스탄 크즐로르다의 고려인협회에 홍범도장군 추모사업과 장군의 공원 관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2021년부터 매년 후원금 미화 천불을 보내고 있다.

12월 15일에는 남양군파 창립 기념식과 회장단 회의가 있었다.



이명우 이사

11월 9일, 도산 안창호 선생 기념관에서 거행된 안창호 선생 145주년 기념식에서 도산 선생의 고향인 평남의 후세로서, 도산선생기념사업회 부회장으로, 도산 선생 약전을 봉독하였다.

회원 동정



이경철 이사

고려인 문화 교육·전수 사업으로 10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2달 동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에서 우즈베키스탄 고려무용단에게 탈춤을 전수하였다.



오광영 이사

12월 9일,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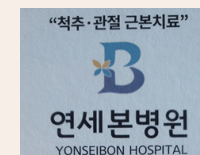
정내하 이사

12월 15일, '시와 문화' 계간지에 시인으로 등단했다.



채예진 이사

2023년 12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박영식 이사

2024년 1월 2일, 면목동에 위치한 연세본병원에 대표원장으로 취임하였다.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blue or grey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